



# 時計塔 SIGETOP



2023년 7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50권 3호

Unit #810, 5501 Merchants View SQ, Haymarket, VA 20169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田璟培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亮 羅斗變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snuclma@yahoo.com

www.snuclmaaus.org

## Water and Life: WELL project in Chad, Africa



최영자 (66, 대뉴욕)  
Charity Committee Activity

Water is vital for All Life,  
an invaluable life-sustaining force.

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Elixir of Life"으로 지구상에서 인간 생명이 존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합니다. 2023년에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가 Chad, Africa에 Well installation 자선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동문들에게 보고드립니다.

### Safe and Clean Water: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질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 25억 명의 사람들이 non-hygenic 물, 샘에서 흐르는, 호수, 연못, 강과 개울에서 처리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위생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식수와 비위생적인 물로 수인성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은 안전하지 않은 수원에 의존하여 수인성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중 차드는 심각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차드는 소득이 낮고 중요 환경 문제로는 non-hygenic 식수 공급, 농촌 지역의 부적절한 폐기 처리, 토양 및 수질 오염과 desertification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더구나 시골지역의 어린이들은 항

상 이러한 물과 위생관련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공급은 43%가 이루어지고 위생시설은 10%만 있습니다.

(Joint Monitoring Program, 2017).

### Chad, Africa



Chad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나 아랍어, 사라 및 1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사용합니다. 차드는 리비아 남쪽 아프리카 북중부에 있는 내륙국으로 면적은 496,000 제곱마일(1,284,000 제곱킬로미터)로 대략 텍사스와 비슷합니다.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수도는 은자메나(N'Djamena)이며 인구는 107만 9,000명, GDP는 \$2,600.00(USD)입니다. 식단은 Roots와 물고기가 주로 되어있으며 일반적인 물고기는 차드의 호수와 강에 잡히는 Capitaine이라고 불리는 나일 퍼치입니다. 축구와 농구는 차

데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Purpose of SNUCMAA of NA (Article III):  
It is to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공중보건과 인간 삶의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미주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charity committee는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NY COCO 조직에 소액의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2023년에는 추가 기금(from Young Choi's Hamchoon Award)과 그리고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회장단과 대의원회의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에 WELL을 설치하는 활동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SOMANG Society\*를 통해 관리됩니다. 우물 하나 건설 비용은 \$3,500입니다. 5년간의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우물 하나를 파면 차드에 거주하는 4,000명의 주민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 \$7,000을 기부하여 우물 2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주 동문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공중보건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자선활동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주동창회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OMANG Society는 Lee Boon ja 회장이 200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77-0695791)입니다. SOMANG Society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깨끗한 우물을 건설하여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OMANG Society는 아프리카 차드에 안전한 식수인 우물 508개 설치를 했습니다.

Certificate and post of SNUCMAA of NA Wells in Chad, Africa



## Directory 2023년 발간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

Publication Committee 서윤석 (68)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에서는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 주소록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발간된 2022년 주소록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미주동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8년 전에 마지막 발행된 주소록은 그후 급속도로 일어난 동문들의 타계, 이동, 또 전자화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로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주소록의 발간을 위하여서는 동창회사무실 파일, 각 동기회장들의 협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발행할 편집과정과 인쇄 발송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8년 전에 비하여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지혜로 해결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결정은 편집위원회와 동창회 임원들의 일치된 결심이며 이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동문과 배우자의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전공과목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이 발행을 위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로 연락을 받으시면 동기회장이나 편집인에게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1967년도 경우 이태안 동기회장의 노력으로 이미 70퍼센트 목표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각 동기별로 추진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9월까지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8년간 밀렸던 동창회 활동 연혁 기록, By Law 회칙개정과 변화된 내용들을 기재하여 미래 후배들이 앞으로 동창회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편집인 서윤석: younseokseo2004@gmail.com

동창회 사무실: snucmaa@yahoo.com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김복동 Bok Dong Kim	배우자	최애라 Aera Choi
주소	2345 River Rd, Alaska 20220		
전화	(cell) 202-222-2222	(home)	202-222-1111
이메일	bokdong12345@gmail.com		
전공과목	흉곽외과(Thoracic Surgery)	Retired	
Active인 경우 직장 이름과 전화 번호			
예를 들면 Yale University Hospital, Tel # XXXX을 추가하면 됩니다.			

책임을 맡을 사람들

1960학년 학년 이덕승, 1961학년 강창욱, 1962학년 김한중, 1963학년 한기현, 1964학년 학년 권정덕 흥선경 (70%완료), 1965학년 학년 정길화,신백효(20%), 1967학년 이태안(70%완료), 1968학년 흥광신 신용계(90% 완료), 1969학년 김병오, 1971학년 조병선 김성환, 1973학년 나두섭, 1975학년 한민우, 1976학년 한승신 김정아, 각 학년별로 더 명시하면 석창호(72학년), 유영준(74), 강석진(77), 전영식(78), 백승원(79), 남명호(80), 차민영(82) 심인보(83), 서귀숙(84), 김자성(85), 신원석(88), 오무연(89), 박계영(90), 강민중(91), 남영재(94), 이도은(99),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젊은 학년은 박은경 편집위원이 총괄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학년의 경우는 변동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동창회 사무실과 서윤석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The Second Generation in Medical Field의 명단에 추가시키실 사항 또 2015년에 비하여 변동됐으면 모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차 학술대회 둘째날 행사를 마치고

### 서울의대 조지아 지부 소식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거주하는 60년도 졸업한 이종석입니다. 항상 우리 서울의대 동문들을 위하여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8월 초에 애틀랜타에서 몇 년간 사시다가 휴스턴 쪽으로 이사 가신 63년 졸업 선우건영 동문의 fair well luncheon을 계기로 하여 이곳 애틀랜타/조지아주에서도 서울의대 동문회가 발족되었음을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고문: 류치열(58) / 회장: 이종석(60) / 총무: 전영성(67) / 회계: 백약운(70)  
 첨부한 사진은 서울의대 조지아 지부 친선 골프모임을 5월 23일에 Windermere Golf Club, Cumming, GA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순조롭지 않은 기후에도 30여 명의 동문, 부인들이 참가하여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마치고 Supper는 근처에 있는 아리랑 K에서 조촐하게 하고 시상식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이번 모임엔 총무 전영성(67) 동문이 전적으로 수고하셨음을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 내조에 힘 입어 준비해 주신 어여쁜 Tee gift를 다들 좋아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친선 골프모임에선 첫 번과는 달리 '서울의대 조지아 지회, 골프대회'란 banner를 display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배너는 곽승용(71) 동문이 donate 했습니다.



###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 모임

지난 5월 25일 정오에 센터빌에서 지역 동창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종국(58) 김부근(58) 서휘열(61) 진장건(61) 고영희(63) 이중오(64) 신백효(65) 채무원(65) 유달(67) 김주평(68) 김철(68) 김진홍(68) 주광국(68) 신용계(68) 서윤석(68) 김병오(69) 박수웅(69) 조병선(71) 김풍영(72) 박인영(75) 동문 20명과 제이미 김 사무장과 15명의 부인들, 총 36명이 참석했다. 조병선 동문의 리더로 교가 합창으로 시작하여 재무보고, 공지사항, 김 사무장의 지난달 LA에서 있었던 38차 학술대회 보고, 서울의 신임 총동창회장 한규섭(78)과 신임 병원장 김영태(88)에 대한 변동 사항 보고, 그리고 편집장 서윤석의 미주동창회 2023년 주소록 발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참석한 동문들은 지난 가을 서울에서 온 2022년 주소록을 받았다. Maryland에서 신백효 동문 내외가 먼 길을 참석하여 반가웠고 운전이 지장이 있는 동문들이 많아서 이번 모임도 낮 시간에 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젊은 동문 참가를 위하여 저녁 시간에 열자고 했다. 재무보고에 신용계, 사회와 홍보에 주광국, 그리고 미세주 주광국 등 여러 68년 회장단 부인들이 후식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 근처 북 버지니아의 명소인 Great Falls Park은 폭포 소리가 요란한 산책길인데 지난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온 우리 동창 부인들의 걷는 모임인 "만보회 萬步會" 20년 기념 책자에 발표된 세 분의 글을 올린다.



### 인연 이순남 Mrs. 신용계 (68)

아직은 이른 아침이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차다. 지난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일주일에 세 번은 꼬박 아침 산행을 한 셈이다. 높은 곳은 아니지만 주택가 근처의 야산 정도라 한 시간 삼십분 걸리는 아름다운 공원 길이다. 사시사철 나무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마련이어서 어떤 때는 길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 여름이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여 지척의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그동안 긴 세월이 흘러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깊어졌다.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저절로 느낀다.

어떤 때는 대화 도중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벽도 생기고 그럴 때면 지혜롭게 넘기는 성품도 길러지고 때로는 혼자 묵묵히 걷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몇 겹으로 지났어도 싱그러움 봄과 함께 다리에 힘이 저절로 오른다. 걷고 나면 청춘은 다시 살아나고 결국, 우리는 긴 세월을 함께 산 셈이다.

### 등산길 박유진 Mrs. 이종국(58)

4월이라 꽃시절 공원에 예쁜 야생꽃들 웅기종기 마음씨 고운 요정들은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짹짹 등산길 흙 조심 다리 조심, 즐겁고 활개 돋은 건강 걸음 하나님 목소리 들듯 다락방에 감사하며 절경 산수에 들이키는 신선한 공기 돌아다본 심신단련 조폭 할머니 보다 더 다져졌네. 다정한 손잡으면 만 년까지 살지? 천 년은 어떨까? 백 년은 어떨까?

### 만보클럽 8주년 이해수 Mrs. 서휘열(61)

80세까지 걸음시다. 물론이지요. 작년에 대화를 교환했는데 이번 겨울을 지내며 한치도 모름을 실감했다. 기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번 겨울 중에는 정구적으로 걷지를 못했다. 운동이 더욱 필요한 나이에 유희으로 걷기보다는 필수가 된 이 시점에 다시 불을 붙여 걸음마부터 시작해야겠다. 지난 8년 참으로 꾸준했었는데 흠여지기 쉬움이 우리의 나약함인가? 북클럽도 쉬고, 기도 모임도 쉬고, 쉬고 나서 얻은 교훈 언 땅을 꿇고 나오는 초봄의 새싹들처럼 우리도 도약해야겠다.



사진: Great Falls

### 시계탑 7월호 편집회 초록



Zoom으로 2023년 7월 8일 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1시에 열렸다. 참석자는 신임 편집위원 노영일, 서윤석, 서량, 서인석, 서귀숙, 박은경, 황창근 사장이다.  
 노영일 박사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서 각 편집위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노영일 님은 1968년 졸업 후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신과를 끝내고 미국으로 와서는 신경과 Neurologist로 작년까지 COVID-19상황에서도 방균복을 입고 Active 하게 진료하였다. 시계탑에는 화가로, 글로, 정기적으로 투고를 해온 수필가이다. 학생 때에는 야구반 피쳐, 미술반과 여러 과외 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시카고 의대 동문들과의 유대가 깊으며 중부지방의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으로도 봉사했다.  
 원고 정리 중에는 까다로운 투고자에 대한 의견과 정치적 색깔이 보일 수도 있는 원고 처리 문제를 토의했다. 항상 진리, 사실 보도를 하자는 서귀숙 위원장의 의견이 있었다.  
 내년 6월이면 50년이 되어오는 시계탑의 역사와 사명감을 기억하고 다양하고 질이 높은 신문 발행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또한 새로 발간 예정인 북미주 동창회 Directory 2023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을 편집장이 설명했다. 서인석 위원이 추진하는 회칙개정과 역대 회장단 연혁이 마무리되면 새 Directory 2023에 기록될 것이다. 바쁜 일정인데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여러 편집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다음 편집회는 10월 14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사진 촬영; 박은경 글; 편집장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도상탁(56) 동문: 시계탑이 반송되어 문외한 결과 자녀 분으로부터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곤(59) 동문: 뉴욕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한인 동포들을 위한 무료 진료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던 김 동문께서 지난 5월 13일 별세하셨습니다.

허선행(64) 동문: Oncology 전문의로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던 허 동문께서 4월 25일 오후 3시에 오랜 투병 중에 자택에서 타계 하셨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장으로 4월 28일 치루었습니다.

허 동문은 미주동창회와 시계탑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별세하실때까지 봉사하셨으며, 미주동창회 이사직도 오랜 기간 역임하셨습니다. 제 6회 미주함춘공로상을 수상하셨고 동창회에도 끊임없이 도네이션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덕겸(64) 동문: OBGYN 전문의로 아리조나에서 거주하시던 오덕겸 동문께서 1~2년전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뒤늦게나마 알려되었습니다.

이광선(65) 동문 부인: 이광선 동문의 부인께서 7월 10일 소천하셨습니다.

김명선(67) 동문: General Surgery 전공의로 활동하시던 김명선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소희(67) 동문 부인: 이소희 동문의 부인 이경자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임번(67) 동문: 소화기내과 전문의 4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승공(69) 동문: 필라델피아 근교에 거주하시던 이승공 동문께서 지난 7월 4일 별세하셨습니다. 6월 버지니아에서 열린 북미주동창회 제37차 학술대회에도 처남인 강대희 전 학장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뜻밖의 슬픈 소식입니다.

### 삼가 허선행 형의 명복을 빕니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자주 한국에 들려서 이곳 여러 형제들을 만나서 늘 다정다감하셨던 형이 이렇게 갑자기 타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한국의 형제들은 그 비통함과 허전함을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형은 먼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가셔서 온갖 고생을 마다않고 그곳에서 의사의 직분으로 봉사하시었지요. 우리는 어렵게 성공하신 형이 자랑스러웠고 또 다정다감한 형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련합니다.

형은 일찍이 산 좋고 물 좋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치는 양수리가 있는 양평의 농가에서 태어나 여러 형제들 속에서 참으로 어렵게 자랐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영특하고 머리가 좋아서 언제나 부모님은 큰 인물이 낳다고 자랑하시고, 그 당시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로 유학을 보내어 성동공고에 다니면서 미래의 영재로 키우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수석을 하시고 졸업 후에는 당시 군부 아래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육군사관학교에 특차로 당당히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미래의 건강 문제를 짚어질 낙후된 의학을 개선하겠다는 길을 택하고 서울의대에 영예롭게 합격하여 형의 천재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셨습니다.

당시는 현대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의학은 참으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당시의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교수들과 학생들의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본과 1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혁명의 주체가 되었고 그 후도 많은 시련을 겪고 우리는 힘든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의과대학 3학년 때에 뜻을 같이하고 정다운 친구들 8명이 점심시간에 함춘원 잔디밭에 모여 도시락을 먹으면서 의형제를 맺고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졸업 후 8형제 중에 4명은 미국으로 가고 4명은 고국에 남아서 동서로 헤어졌지만 마음만은 우리는 늘 하나였습니다. 미국으로 간 친구 중에 지금은 타계한 송관호 형이 서울의대미주동창회장과 재미 한인의사협회장을 맡으셔서 의학 교류에 이바지했고 형도 송관호 형과 같이 미주의대 동창회에 많이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형은 일찍이 글쓰기를 좋아하셔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인 시계탑의 편집을 맡으셨습니다. 시계탑은 미주 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이곳 한국 동문들과의 소통의 매개체도 되고 있습니다. 형은 이 시계탑 편집회 일에 돌아가신 날까지 관여하셨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현대의학의 최첨단인 치료방사선과 Radiation Therapy를 연구하시고 미국에서 많은 전립선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나와서도 한동안 선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곳의 우리 의형제 중에 학구파인 고 이창주 형이 정형외과를 하고 한림대학 한강성심병원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교적 자주 왕래가 있었고 졸업 20주년, 30주년과 40주년, 50주년 맞아서 10년에 한 번씩 서로 헤어졌다가 만나는 기쁨도 가졌습니다.

금년초에는 우리 형제 중 만행인 선행 형이 앞으로 5월 꽃 피고 좋은 봄날, 모두들 모여서 국내여행도 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자고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우리 8형제 중에서 송관호, 이창주 그리고 형이 떠나니 5형제만 남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이제 85세가 넘는 우리들은 모두 하늘에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도 먼저 하늘 나라에 가셨으니 남은 우리 형제들은 먼저 가신 형을 따라 한 명 두 명씩 가면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그동안 풀지 못한 회포를 풀려고 합니다.

형은 1남 1녀를 두셨고 아드님은 산부인과 의사로 가끔 한국에 와서 의학 세미나를 하여 형님의 뒤를 이어 한국의료계와 교류하고 그때마다 형도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형의 부음 소식을 받고 미주나 이곳 형제들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형의 부인과 가족들에게는 삼가 심심한 조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먼저 가신 형들과의 인연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형을 떠나보내는 서글픈 마음은 한이 없으나 형이 남기신 아름다운 자취를 따라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선행 형, 부디 하늘나라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쉬십시오!

서울에서 학제 김철규(64년 졸업) 올립니다.

### 고 허선행 님의 49재(齋) 불교의례 참가기

지난 6월 13일(화요일) Tappan, New York에 위치한 불광선원(불광사)에서 작고한지 49일이 되는 허선행 선배님을 추모하는 의례가 있었다. 고인의 영혼이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천국으로 떠나게 하기 위한 기도 의식이다.

권정덕, 홍선경 부부 동기님들을 비롯하여 한태진 동기 보살님의 리드로 멀리 Schenectady, NY에서 온 동기 이정은, 방효령 동기님 부부와 오유섭 동기님이 참석했다.

수년 전 Ob-Gynecologist로 White House에서 연설을 했다고 시계탑에서도 소개된 Alabama에서 올라온 아드님 Dr. Warren Huh와 따님 Karen이 슬픔으로 애통해 하고 계신 어머니를 예식 내내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도 같이 아팠다.

지난 1월 14일 Zoom으로 있었던 시계탑 편집회에 불참하시어 며칠 후 전화를 했더니 자신이 병원에 2주가량 입원 중이라면서 “나이가 그리됐지요. 허허..” 하시더니 이렇게 숨어 있던 뇌종양으로 급히 인사도 없이 떠나셨다니 놀랍고도 안타까워 가슴이 저리다.

허 선배님이 우리 동창회에 기여한 바는 너무도 크다. 초창기부터 시계탑 편집장을 역임하고 독자를 생각하게 하는 명 수필을 수시로 발표하고 사십여 년간 빠짐없이 편집회에 참여하여 많은 공헌을 하셨다. 그리고 그 공적으로 2020년에는 함춘 미주공로상을 받으셨다.

비록 불교와 기독교의 의식이 다르지만 종교의 가르침이 사랑과 자비와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같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영혼과 생명은 그동안 담겨서 친구, 아들, 아버지 혹은 이웃으로 활동하던 더 이상은 못쓰게 된 그 육신을 떠나 원래의 고향(Pool of Spirit, Pool of Life)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불광선원 큰 법당 아래 허 선배님 가족이 새로 심은 어린 더그우드, 라일락, 일본 단풍나무 그리고 흰 목련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곧 이 나무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더운 여름엔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번 세상에서 허 선배님과 우리들의 인연은 늘 기쁨으로 가득했고 풍요로웠다. 오!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아멘, 아-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글; 편집장 서윤석



### Obituary

John Joonpyo Hong, age 84 of Westlake, passed away peacefully on the morning of Monday, April 10, 2023, five months after suffering a stroke with subsequent complications. He was a devoted husband, father, and grandfather, and he enjoyed frequent visits from his family and friends throughout the course of his illness.

John grew up in Korea, where he attended Kyungbok High School for boys in Seoul and graduated in 1958. He was accepted into the prestigio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began his pre-medical studies in the fall of 1958, graduating with his Medical Doctor degree in 1964. He finished 8th in his class and chose to pursue general surgery as his specialty. After training in Seoul, South Korea, John immigrated to Halifax, Nova Scotia in 1967 for a surgical internship, then to Northeast Ohio to continue his general surgery training. He trained at Aultman Hospital in Canton for one year, then Fairview Hospital in Cleveland for the remainder of his residency. He served as chief surgical resident from 1971-72 at Fairview Hospital.

John and his wife were very proud to become U.S. citizens and worked hard to build a good life for their family after coming here with very little. Having managed to escape capture and almost certain death by a North Korean soldier as a pre-teen, he was always very grateful to the U.S. for their help during the Korean War.

After residency training, John opened his own private practice in Brook Park as a general practitioner and general surgeon in the 1970s, eventually building his own medical office that he passed on to his son. He was a Fellow with the International College of Surgeons and had staff privileges at Deaconess Hospital, Fairview Hospital, and Southwest General Hospital over the course of his medical career. He built a large solo practice, serving many in the area, and was honored by the union workers of the Ford Motor Company in appreciation for his dedication to their healthcare. John retired in 2013, with his children following in his footsteps in the medical field, as he followed in his dad's footsteps. They all became doctors or dentists and all married doctors or dentists.

Outside of medicine, John enjoyed classical music and playing the violin. He could often be found on the golf course when the weather was nice enough, even managing to hit an elusive and much-desired hole-in-one. He remained the ultimate student throughout his life with a constant appetite for knowledge, satisfied through reading, watching documentaries, and then YouTube once he discovered it as a source of information.

But above all, John was a man who loved his family, and they meant everything to him. John is survived by his beloved family: wife Judith, aka Judy, with whom he would have celebrated 58 years of marriage next month; children Richard (Kyoko), Rosamond, aka Rosy, (Jeff Weil), and Raymond (Sandy); grandchildren Marcus, Nicholas, Tyler, Jaimeson, Jessica, Katie, Lauren, Alexander, Adelyn, Audrey, and Alayna; sisters Pamela Okpyo and Henrietta Kyungpyo. He is preceded in death by his father Myung Kil Hong, mother Kilsang Hong (nee Song), his brother Kevin Keunpyo, and his sister Grace Jongpyo Yoon (nee Hong). He will be greatly missed by many.

# 세종문화회 사업소개

(2004-2023)



박종희 (75, 시카고)

세종문화회(공동회장 전현일, 박계영)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널리 알리고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이해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에 일리노이대 교수 박종희 등 미국 시카고 거주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주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후손들에게는 모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타 문화권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하여 미국 내 민족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미국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아 미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는 2004년 이후 매년 다양한 미국 사회 구성인을 대상으로 음악과 문학을 포함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왔습니다.

## (1) 세종음악경연대회

2004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분으로 나누어 초등, 중등, 고등부로 나누어 시행하며 참가자는 자유곡과 지정곡을 연주합니다. 지정곡은 세종문화회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의 음률이나 장단이 들어간 곡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참가자들이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음악 작품을 연주하면서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함께 배우도록 기획한 대회입니다. 이런 곡들을 연주하는 학생, 선생님과 가족들도 한국의 정서를 배울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종문화회는 여러 작곡가 (한국인,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음악 요소가 들어있으며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지정곡들을 작곡하도록 커미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열이 들어있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곡 약 150편이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위하여 작곡되었고 현재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어린이들도 한국의 열이 들어있는 곡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된 지정곡들로는 밀양 아리랑 (by Teddy Niedermaier), Distant Fields (새타령을 테마로 한 곡 by Kyle Werner), 경북궁타령 (by 장재혁), 창부타령 (by Mischa Zupko), 몽 (몽금포타령을 테마로 한 곡 by 양희영) 등등의 곡들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오래전부터 미 중서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경연대회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2020년부터 virtual competition으로 바뀌면서 전국에서 약 150-2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대회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약60-70%가 비한국인입니다.

## (2) 세종작문경연대회

2006년부터 매년 수필 부문과 시조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를 통해 한국의 전래 동화와 한국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미국 및 캐나다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수필부문은 한국의 전래동화나 한국 작가들의 단편 소설 영역판을 읽고 독후감을 영어로 쓰는 것이고 시조 부문은 영어로 시조를 쓰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매년 약 1,200-1,900명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누적 참가자는 약 20,000명이며 참가자의 90%가 비 한국인입니다.

그동안 세종작문대회의 수필부문 토픽으로 쓰인 소설들은 “학” (황순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주요한), “유리방패” (김정혁), “춧눈날개” (하성난), “까피탄리” (천광용), “아우와의 만남 (이문열), “날개” (이상), “그 여자네 집” (1988) (박완서), “아비야, 달려라 (김애란), “토끼의 묘” (편혜영), “포플라 나무” (최인호), “원통안의 소녀” (김초엽),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이문열), “공생가설” (김초엽) 등등입니다.

## (3) 국제시조경연대회

시조대회 참가자를 북미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부응하여 2021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자격은 나이 제한 없이 영어로 쓴 시조 한편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2021년 첫해에 19개국에서 200여 명이, 2022년에는 29개국에서 290명이 시조를 제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4) 교재 발간

동영상, 교재 개발 및 교재 발간을 통하여 한국의 시조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교사들을 위한 시조 교육을 꾸준히 진행함과 더불어 영문 시조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재 개발과 배포 결과 한국의 시조를 접한 미국의 교사들이 시를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시조를 써보고는 시를 쓰게 되는 좋은 학습이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조를 배우는 학생들



이 한 걸음 더 나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배운다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시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시조 교육 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를 출판하였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쉽게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 시조 수업 지침서(Lesson Plan)도 포함했고 세종작문대회 수상자들의 작품도 포함했고, 영어는 물론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시조를 이 참고서에 포함하여 시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서입니다. 이 책은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로부터 2023년 Buchanan Prize를 받았습니다. 이 상은 우수한 교육자료 책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책은 미국의 교사들과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Buchanan Prize 시상식



Boston에서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AAS) 연례총회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AAS는 전세계의 Asian Study를 하시는 대학 교수들의 가장 권위있는 모임입니다.

## (5) 시조와 음악의 융합

시조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시조 힙합송, 시조 클래식현대 앙상블, 시조 재즈, 시조로 만든 한국 가곡들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린 음악회 (2017년, 2019년)와 여러 페스티벌에서 공연하여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행사도 하였습니다.

## (6)시조 강의 및 워크숍

시조 교육을 위한 강의 및 워크숍들을 미국 여러 도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의 교사들에게 시조를 홍보하기 위하여 회원 수 20,000여 명의 미국 전국 영어 교사 모임,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CTE) 연례 회의에서 강의도 지난 수년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위스콘신주의 영어 교사 모임(회원 약 5,000 여명)에서도 강의하고 온라인 시조 클래스도 하고 있습니다.

## (7) 시조 논문 발간

영어교사들이 애독하는 여러 전문잡지

에 시조에 관한 논문을 수년간 출판하였습니다. NCTE English journal, Ohio Journal of English and Language Art, Wisconsin State Reading Association Journal, Teachers & Writers Magazine, Edutopia, The Writing cooperative 등등의 journal에 시조에 관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 교사나 시인들의 동우회 웹사이트 들에도 시조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 (8) 기타행사

세종문화회는 상기한 행사 외에도 미국 주류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에 이문열 작가를, 2014년에는 고은 시인을 시카고로 초청했고 2017년에는 한국의 작곡가 13명을 시카고의 클래식 라디오 방송국에서 두 시간에 걸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는 등 이런 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종문화회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미국인들, 세계인들과 공유함으로써 미국 내 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조화를 증진함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미국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아 미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보급을 넘어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되었던 음악과 작문 경연대회에 미국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발굴하고 발표하는 등으로 진화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저변이 확대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세종문화회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위스콘신의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시조 시화전 (Sijo and Art), 세종문화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과 문학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 (<https://www.sejongculturalsociety.org/>)

SIJO book interview at Korea Society (<https://bit.ly/3YMXShI>)

SIJO book on Amazon (<https://amzn.to/3JsN13P>)

Sejong Cultural Society YouTube Channel (<https://bit.ly/2UhI5uS>)

Sijo and Music Concert at Rush Hour Concert (<https://bit.ly/3z4CCqy>)

세종문화회 참고자료(<https://www.sejongculturalsociety.org/resources/>)



Dear SNUCMAA-NA,

I am writing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ose who endowed the SNUCMAA-NA Dr. Sang Seol Rhee and Mrs. Rhee Scholarship. I am honored and appreciative of your support.

I am a second-year student in the Sophie Davis B.S./M.D. program, which is an accelerated seven-year medical school program. This scholarship has been a tremendous help to my financial situation, allowing me to pay off my tuition and school expenses. This year, I attended my first research conference as an undergraduate ophthalmology researcher.

With your support, I was able to afford conference expenses including supplies and travel costs. Investigating the molecular and cellular mechanisms of the development of the retina, I presented my poster to esteemed physicians and researchers. This was an incredible learning experience as I presented my research; engaged in insightful discussions on the latest developments; and received invaluable input on my project.

Altogether, the scholarship allowed me to work less and wholeheartedly focus on my academics and extracurriculars. I was able to explore various opportunities at my medical school. For instance, I took part in an orthopedics workshop where I learned how to analyze X-rays and gained hands-on experience in casting and splinting. I also attended numerous medical talks/panels, learning about physicians' work from various specialties. My favorite and most interesting event was with an OB/GYN resident who plans to do a fellowship in a fairly new

domain: gender-affirming surgery. Overall, these panels taught me how expansive and innovative medicine can be. I was able to learn different fields of medicine that I otherwise did not know existed. Moreover, with these decreased financial burdens, I was able to focus on new research projects with my professors. Currently, I am investigating anti-stigma mental health interventions for Asian Americans. I have been working on organizing focus groups in Flushing high schools. Collectively, these involvements help me become a better physician as I strengthen my skills in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problem-solving. This month, through a committee's nomination, I was invited to a luncheon where I had the opportunity to sit and talk with the Dean about my research.

It is incredibly meaningful to be a recipient of a SNUCMAA scholarship and be a part of a community of fellow Korean American physicians. As a first-generation Korean American, I

come across barriers in navigating college such as financial costs or my 3.5-hour roundtrip commute from school to home. As an aspiring physician, I will help others in similar situations by being a valuable mentor and guide to them. Similar to the impact this scholarship has done on me, I hope to also give back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fellow aspiring physicians. Most importantly, I envision myself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patients as a compassionate and empathetic physician. Thank you again for helping me pursue my dream of becoming a physician and supporting my education.

Sincerely,  
Michelle Kwon



**김하림 동문**  
(2019졸업, 내과)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Midtown Campus

**1. 어떤 계기로 미국에서 레지던시 수련을 받기로 결정했나요?**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 방법을 찾던 중 의과대학에 지원하였고, 결국 여기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본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여 관악 캠퍼스에서 공부하다가 이과 쪽에도 관심이 생겨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학부 2학년 때 Los Angeles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에서 한 달 동안 연수를 할 기회가 있어 한인 청소년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에만 사는 줄 알았는데, 수많은 한인들이 미국 땅에 터를 잡고 지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역시 평생 한국에서만 살기보다는 더 넓은 미국 땅에서 일을 하며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박사 유학 등의 길을 생각해 보다가, 의사가 되면 미국에 가서 살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의과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다시 의과대학 체제로 재개편되는 때였는데, 교내에서 편입생을 다수 선발하던 때라 기회가 좋았습니다. 이에 학부 졸업 후 의대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는 내내 미국행을 꿈꾸며 준비를 하였고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와 레지던트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레지던시 매치 준비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매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동기들이 모교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계획을 할 때, 소수가 택하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 총 세 번의 필기시험을 보고, 미국에 가서 실기 시험도 치르고, 미국 교수님들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에 원서를 내고 서류 준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네 명의 의대 동기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준비하였고, 미국행을 준비하는 선배들의 모임인 MEXIM 동아리 활동으로 매치 과정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 중에서도 한국에 오셨을 때 동아리를 찾아주셔서 만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해 주신 조언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 내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요?**

갓 졸업한 외국 의대 졸업생으로서 미국에서 바로 매치하여 전공할 수 있는 과의 종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과, 소아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도로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련을 받기로 했다면, 가장 관심이 많았고 재미를 느꼈던 피부과에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피부과에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 길을 가기로는 미국에 빨리 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과를

선택해서 그 과 의사가 되자고 생각했습니다. 일차 의료에 흥미가 있었고, 의학의 기본이 되는 과이자 다양한 환자군과 질병을 접할 수 있으며, 진로 또한 다양한 내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만족합니다.

**4. 미국에 오자마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코비드 판데믹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병원 생활을 시작하던 2020년 7월은 한창 코비드 판데믹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대사관들도 문을 닫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던 시기였는데, 다행히 필수 의료 인력으로 인정받아 긴급 비자를 받고 간신히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의 70-80%는 코로나 감염 환자였고, 병실이 없어 환자들이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늘어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백업 레지던트들도 계속 불러 나와 일을 하였고, 병원 행사나 친목 행사들도 전무하여 레지던트들 모두가 외로움과 과로로 인한 피로가 컸습니다. 계속 무덤덤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첫 백신이 개발되고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던 날, 차츰 코로나 환자들의 비율이 줄어 마침내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감격했던 올봄의 어느 날이 기억이 납니다. 역사에 기록될 코로나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는 데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판데믹과 함께 한 수련 과정을 끝까지 다 해내고 저희 동기 모두가 6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말 뿌듯하였습니다. 첫 아이가 돌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레지던트를 시작하였는데, 육아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해냈더니 더욱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전우애를 느낄 만큼 동기들과도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니 아쉽습니다.



**5. 레지던시 수련은 어땠나요?**

병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공의 1년차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언어가 다른 낯선 땅에서 시작하는 이민자 의사였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어려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않은 일였습니다. 메릴랜드 대학병원 미드타운 캠퍼스는 미국에서도 마약 문제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볼티모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감상 70-80%의 환자들이 마약 문제를 갖고 있고, 총기 사고를 당하여 내원하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입원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인 이유, 예를 들어 폐 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어서도 기저 질환 병력에 마약 중독이 당뇨나 고혈압처럼 흔하게 따라붙어 있습니다. 저와 동갑인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마약 중독 상태에 흡리로 살며 얼굴은 오십대 정도로 보일 정도로 늙어 보이고 온몸에는 각종 피부 감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8살때 집에서 마약을 시작했다는 환자도 있었는데, 유희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까지 마약이 스며들 정도로 쉽게 유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경악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마약의 심각한 실제 등 미국의 어두운 면을 많이 목격하며 미국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연차가 올라가면서 영어실력도 많이 늘고, 의학지식도 쌓여서 3년 차 때는 정말 마

음 편하게 일하며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내과 프로그램도 모두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던 터라 동료들과 교수님들로부터 정서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6. 미국살이, 메릴랜드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Columbia, MD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고 자연 재해가 많지 않으며 한인 인구도 많고 H mart가 두 군데나 있는 등 한인 인프라가 잘 되어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워싱턴지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서 만난 동문들과 동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00학번 이후 동문들의 모임인 '샤로수'만 해도 회원이 100명이 넘어서 피크닉도 함께 가고 야구장 플레이 데이트도 하는 등 교류하며 타지 생활 속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은 한국 생활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비교적 유지할 수 있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이 모두 한국에 있어 자주 볼 수 없고, 이민자이자 소수자로 살아야 한다는 점, 총기와 마약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미국에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미국 생활이 제게 정말 잘 맞는다고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느끼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저는 높은 빌딩이 가득한 도시에서 일하고, 걸어 다니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활발한 대도시 생활이 익숙하고 좋더라고요. 폭넓은 인간관계가 그림고, 한국 식당이나 식료품점이 있어도 아무래도 한국만큼은 아니니 생활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LA에 정착했어도, 음식 문제는 조금 나왔겠지만 결국 비슷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7.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주말과 휴일에는 남편과 이제 4살이 다 되어가는 딸과 함께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직장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이제 곧 7월 초면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저희는 근처 호수에 산책을 자주 갑니다. Lake Kittamaqundi라고 면적이 27acre에 달하는 인공 호수인데, 무척 예뻐요. "만남의 장소(meeting place)"라는 뜻인데, 공원 안에 놀이터는 물론 작은 배를 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호수 한가운데에는 섬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쇼핑몰도 있어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도 이 호수에서 합니다. 샤로수 동문회에서 알게 된 분들과 만나서 식사나 플레이 데이트도 하고, 레지던트 선배들과 만나 근교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8. 여행한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레지던트 때 여행한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 월드예요! 매직 킹덤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도 보고 디즈니 놀이 기구를 타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디즈니 만화를 보며 꼭 방문하고 싶었던 디즈니 성을 방문하게 되다니, 그곳에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것처럼 짜릿하게 기분 좋았어요.

**옥수수**

김영희(68년 이견일 부인)

100도가 넘는 여름날씨 7월  
몇겹의 겹겹질 속에 한알 한알 줄세운 진주들  
비단실과 껍질을 겹겹이 두르고 옥수수는 자란다.

속껍질은 연한 연두색 저고리 짓고  
비단실 꼬아 매듭 단추 만들고  
짙은초록 겹껍질은 긴치마를 만든다.

옥비녀 머리단장, 옥쌍가락지 끼고  
연두색 모시옷 다려 입고  
손녀 손잡고 마실 가볼까!



**9. 레지던시 졸업을 축하합니다.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요?**

저는 9월에 귀국하여 부모님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 원래 관심이 많았던 피부 클리닉에서 일을 하면서 추후 한국에서 살지 미국으로 다시 올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은 돌이켜보면 참 무모하기도 했던, 20대 때의 패기가 아니었다면 올 수 없었던 결정 같습니다. 레지던트를 끝내고 미국에 어떻게 얼마나 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미국에 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젊은 열정 하나로 도전해서 왔어요. 그 덕분에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빨리 매칭에 성공해서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무척이나 해 보고 싶었던 일이었던 만큼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지만, 앞으로 부모님 친구들과 떨어져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평생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나는 어떤 곳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미국에서의 수련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비록 한국에 돌아가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 수련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나 역시 하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활동 반경을 한국 너머로 넓힐 수 있었고,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웠을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인생이 더 다채롭고 풍부해진 것이 소득이랄까요. 저처럼 수련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으니, 만약 미국행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저처럼 무모하게(!)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레지던트 1년 차 때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미국 의사 생활에 대한 만화를 주 1회 연재해오고 있는데요 (Instagram.com/usmd\_toon), 소소하게 그려온 만화의 팔로워 수가 어느덧 2,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 '미국의사 다이어리'(가제) 라는 제목으로 만화책도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레지던트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께 제 만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 세계적인 만화가

## Jim Lee



편집자 주: 세계적인 만화가인 이용철(Jim Lee)의 부친인 이덕송(60)님이 1987년 6월 10일 쓴 글과 2023년 5월 5일 미주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소개한다. 아울러 Jim Lee가 25여 년 전에 발간하였던 첫 책자를 포함하여 4권의 책자의 사진을 올렸으며 이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그의 아버지 이덕송(60)의 이야기

알파 플라이트(Alpha Flight)란 캐나다 정부를 모략하고 파괴하려는 음모와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정정당당히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는 한 영웅 집단의 이름이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큰 만화 회사인 마벨사(Marvel Entertainment Co.)가 매달 발간하고 있는 30여 종의 만화책 중에서 지난 1982년부터 시판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이다.



다 정부를 모략하고 파괴하려는 음모와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정정당당히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는 한 영웅 집단의 이름이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큰 만화 회사인 마벨사(Marvel Entertainment Co.)가 매달 발간하고 있는 30여 종의 만화책 중에서 지난 1982년부터 시판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이다.

금년 6월 10일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와 유럽 곳곳에서 선을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내용의 탐정 만화 <알파 플라이트>를 그린 사람이 바로 내 아들 용철, 미국 이름 Jim Lee이다. 물론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 중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린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시판되는 만화를 한인이 맡아서 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의학을 전공했으며 아들의 이러한 재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의 사돈의 팔촌에 이르기까지 눈을 비벼 찾아보아도 미술이나 혹은 만화에 관련된 사람을 본격적으로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1986년 6월 10일 용철이가 프린스턴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었을 때만 해도 아내와 나는 그 애가 내 뒤를 따라 인술을 배푸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으로 믿었다. 왜냐하면 용철은 대학 4년간 졸업 Pre-Med 과목만을 공부했고 MCAT 시험에도 우수하게 합격했던 후여서 우리는 그 애가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졸업 후 사흘 밤을 보내고 난 그 애의 무표정한 긴장된 모습

을 보고 우리 가문 내에 모종의 중대사가 생길 것을 예상하게 되었다. 우리의 우려대로 앞으로 1-2년간 상업 미술로 경제적 기반을 닦은 후, 순수미술의 마스터 과정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주었다. 한동안 앞이 캄캄하여 안절부절 하다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과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술이란 의술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취미생활로 계속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예술 방면에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 게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먹고살기가 힘든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최상의 부드러운 말로 나는 조언을 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아들의 일생의 항로의 키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설마 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을 못 버렸다. 막상 하루 종일 화실에서 그림만 그리다 보면 단 며칠도 못 가서 싫증을 낼 터이고 그 싫증이 쌓이면 그때는 두 손을 바짝 드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어설픈 판단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거둬들일수록 그 애의 사기도 정비례로 충진됨을 물론 필요 적절한 영감이 떠오르면 식음을 전폐하거나 취침도 전폐하는 때도 있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자식의 선천적인 재질 발굴과 취미생활을 무시한 채 무사안일주의로 자식을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다스려 보려던 우리 부부의 근시안적인 교육방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용철은 출생 시부터 다른 애들과는 달랐다. 세 살 때부터 크레용만 손에 쥐었다 하면 그림을 그려댔다. 당시 유행했던 ‘황금박쥐’를 텔레비전에서 보면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화면을 통해서 흘러나



오는 황금박쥐 노래에 장단을 쳐가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다. 이웃의 소개로 미술대학 출신의 개인 지도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시기 상조이라는 선의의 거절에 초기 특수교육의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이민을 온 후 나의 인턴생활이 시작되고 이 아이에게 과외지도의 눈을 돌릴 시간은 없었다. 그래도 용철의 재질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시간을 내서 학교에 간 적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Mrs. Waltson은 나를 반기면서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용철이가 그린 그림을 석 장 꺼내서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용철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하겠어요.”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내가 보기도 좋았다. 첫 번째 그림은 커다란 아폴로(Apollo) 우주선 옆에 우주복을 입은 세 사람의 우주인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의젓하게 서 있는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고 즐겁게 노는 장면이었고 마지막 것은 Mrs. Waltson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초상화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용철이가 그린 포스터가 교실 안팎으로 나붙더니 중학시절에는 St. Louis에 있는 유명 백회점인 Famous-Barr에서 주최한 미술경연에 입상이 되어 전시된 적이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에는 아예 교내 신문의 Art Director 감투를 썼고 대학을 졸업하던 1986년에는 1,066명의 졸업생들에게 배부된 흰색코트의 뒷면에 새겨진 도안을 직접 그렸다. 그 도안은 프린스턴대학의 상징인 호랑이가 높이 쳐든 오른손에는 졸업장을 맡아 쥐고 있었고 그 왼손에는 지팡이(cane)를 잡고 있는 늙은한 모습이다.

금년 마벨사와 계약을 맺게 된 동기만 해도 우연의 행운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강한 집념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1986년 12월 뉴욕에서 있었던 Comic Science Fiction Convention에 가기 위하여 여러 장의 그림을 정성껏 그렸다. 수천 명에 달하는 만화 애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시된 그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유독 용철의 그림이 마벨사의 편집장 눈에 들었다. 다음날 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편의 만화를 시험적으로 그려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질을 받았다. 얼마 후 단 한 편의 테스트를 거쳐 고정 계약을 맺게 되었다. St. Louis에서 Alpha Flight 51호가 시판이 되던 날 이곳 Comic Book 만화책 전문서점 주인의 초청

으로 자신의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서명을 해주면서 즉석에서 풍자적인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그날 산동 요리 전문인 중국집을 찾았다. 마침 대학을 다니던 딸도 여름방학이라 우리 넷이 식탁에 둘러앉아 용철의 알파 플라이트 51호의 출판연을 가졌다. 용철의 밝은 미래와 성공을 기원하면서 샴페인 잔을 부딪치면서 용철은 아내와 나를 정중히 바라보면서 겸손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I am glad you understand me. 나는 Doctor 안 해도 잘 살아요.”



약간 더듬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말끝을 분명히 이어갔다. 이제 8월이면 23세의 의젓한 청년 신사가 되는데도 샴페인 한 모금으로 불그스레 타오르는 아들의 옛된 얼굴을 보니 20년 전 황금박쥐에 몰두해서 앉았을 때의 그 귀여운 모습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어 보였다. - 1987년 6월 10일

#### 한인 슈퍼 스타 만화가 Jim Lee DC 회사 대표가 되다

슈퍼맨(Superman), 배트맨(Batman) 원더우먼(Wonder women), 슈퍼 히어로(Superhero) 등을 보유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표로 Jim Lee가 승진됐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의 글로벌 대표인 팸 리포드 회장은 세계적인 만화가이며 작가이며 출판업자인 Jim Lee(59)를 DC 대표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워너브라더스의 상징인 DC 코믹 출판사의 발행인 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CCO)을 겸직한다. 이 대표는 DC의 크리에이터 팀을 이끌면서 전 미디어에 걸쳐 DC의 캐릭터 및 스토리 출판 포트폴리오를 통합해 WBD의 브랜드와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 리포드 회장은 밝혔다.

미국 만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정착했다. 프린스턴 대학(심리학 전공)을 졸업하고 1986년 마벨(Marvel) 코믹 회사에 입사하여 본격적인 만화가의 경력을 쌓았다. 1991년 그가 만든 엑스맨(X-Men) 이슈는 한 달 만에 무려 800만 부가 팔리면서 단행본으로 최다의 기록을 세웠다.

- 2023년 5월 5일 미주 중앙일보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2023년도 장학생 선발 요강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에서 2023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US Citizen, 영주권자에 한하며, 대상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생에 한함. 우수한 학업성과 특기가 있는 동포자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임. (예년에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장학생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됨)
- 모집인원 :** 10명 이하, 장학금: 각 \$2,500에서 \$3,000
- 구비서류 :** Application form(snucmaaus.org website의 form에 있음), original transcript, personal statement,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school faculty (website에 Form이 있음)
- 응모마감 :** by midnight EST(EDT) September 11, 2023. 발표: email을 통한 개별통보
- 접 수 :** 모든 필요서류를 PDF file로 변환 후, single package로 합본하여 email로 응모. (by mail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Email: snucmaa.scholarship@yahoo.com (All communication via email onl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

# 추상표현주의 화가 아실 고르키

정유석 (64, 북가주)



지난 수 세기 동안 파리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다. 20세기에 들어 미술에서는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파리 학파 등 수 많은 새로운 기법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피카소는 잠적했고 마티스는 프랑스 남부로 내려갔다. 파리를 점령한 독일 정권은 모든 추상미술을 퇴폐한 예술로 간주하고 수 많은 작품들을 파괴하거나 약탈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미술계는 심한 침체 상태에 빠졌다.

프랑스 미술의 몰락과는 별개로 이차대전 무렵부터 미국 뉴욕에는 일단의 미술가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들어 추상화를 시도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림의 대상이 일정치 않은 추상화를 한다는 점과 가난 속에서도 술을 무지하게 마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추상화는 어떤 일정한 경향이나 주류라고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평론가들을 그들을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라고 칭했다 잭슨 폴락, 빌렘 드 쿠닝, 마크 로스코, 로버트 머더웰, 바넷 뉴먼, 프리츠 클라인, 아돌프 고틀리브, 클리퍼드 스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이 유럽 화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해도 대서양을 건너 교류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초현실주의 미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앙드레 브레통 (Andre Breton)은 미술이론이나 기법에, 당시 대두해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던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영향을 크게 받아 '무의식', '억압', '상징', '꿈의 해석'같은 이론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정신분석학은 나치에 의해 불건전한 학문으로 간주되어 억압당하자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 자신의 이론을 미국 미술계에 소개했다.

아실 고르키 (Ashile Gorky, 1904-1948)는 아르메니아 태생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던 터키군에 징집되었다 당시 아르메니아 지역은 오스만 터키에 속해 있었다. 아버지는 군 복무를 피해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가족이 강제추방 당하고 인종말살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들 눈앞에서 어머니는 굶어 죽었다. (한 세기가 더 지난 지금까지도 터키가 맹렬히 부인하고 있는 소위 '아르메니아인 학살사건'이다.) 이렇게 고르키는 불우한 소년생활을 하면서도 주로 독학을 통해 화가로 등장했다. 그의 그림에는 이 어린 시절의 심적 상처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의 본명은 아르메니아의 이름으로 아도안이었지만 1931년 결혼한 이후 고르키란 이름을 사용했다. 아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를 프랑스 식으로 표현한 것. 당시 소련에서는 작가 막심 고르키가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이 화가와 막심 고르키는 민족도 다르고 혈연도 다른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였지만 화가는 이 작가의 사촌관계라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한다.

고르키는 원래 '쓴맛'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 이름의 의미에 크게 인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기에 그는 세잔느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입체파 같은 그림들을 그렸으나 차차 초현실주의 화풍을 받아들였다. 1913년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이곳의 추상 화가들과 어울렸다. 자신의 그림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연히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일원이 되었다.

유럽에서 체득한 미술 기법이 남은 영향인지 그의 그림은 추상화를 표방하면서도 여러 군데에서 구상화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마치 미로나 탕기의 그림을 연상시키듯 인체 부분과 흡사한 사물들을 초현실적 방법으로 화폭에 즐겨 그렸다. 그가 교류한 화가들 중에도 특히 절친했던 드 쿠닝은 "나는 많은 화가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도 그는 정확히 사물의 진수를 찾아내는데 탁월했다. 나는 그와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다."라고 칭찬했다. 한동안 고르키는 드 쿠닝의 우상이었다.



1940년대 고르키는 자신의 그림을 프랑스의 화가 브레통에게 보여주었다. 브레통은 깊게 감명을 받았다. 특히 '간은 닭의 뱃이다' (The Liver is the Cock's Comb)라는 작품을 보고는 미국 땅에서 창작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칭찬하면서 고르키를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불렀다. 브레통이 처음으로 초현실주의란 개념을 만들고 그 주의를 제창했으니까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던 것이다

그의 말년은 글자 그대로 비참했다. 1946년 스튜디오에서 불이 나 그가 아끼던 작품 27점이 소실되고 말았다.

화불단행 (禍不單行)이라 했던가. 불행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직장암 수술을 받고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화필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1947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다음 해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더 이상 화필을 들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동료 화가와 바람이 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를 떠났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결국 1948년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쓰디쓴' 인생을 하직하고 말았다.

# 멸뚱남

주광국 (68, 버지니아)

요즈음 나는 '멸뚱남'이라 불리우고 나는 아내를 '시기녀'라 부른다. 멸뚱남은 멸치의 뚱을 빼내는 남자란 뜻이고 시기녀는 시간만 가면 기어나가는 여자라는 말의 줄인 말이다. 나의 아내는 shopping을 너무 좋아해 틈만 나면 시기녀가 된다. Eye shopping을 하든 물건을 사든 shopping 하는 걸 무조건 좋아한다. Shopping 하면 피곤한 걸 모르고 항상 생각이 돌고 눈은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쇼핑계의 거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는지 곧잘 아내한테 묻곤 했다. 시기녀가 되어 Mall이나 store에 가면 무엇이든지 하나는 꼭 사 들고 집에 들어온다. 은퇴해서 Virginia로 이주한 후에는 이젠 늙어서 살 것이 없다고 항상 말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 하나는 꼭 사 들고 들어온다. 사 온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맞지 않다고 return 하느라 또 시기녀가 된다. 요새는 6살짜리 손자 물건 사 오느라 바쁘다. 사 온 다음에는 손자가 할머니가 사 온 장난감이나 상품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거나 맞지 않는다고 하면 바꾸러 나가느라 또 시기녀가 된다.

나의 아내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든다. 그래서 외식은 많이 안 하고 친구들과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만 밖에 나가서 먹게 된다. 많은 은퇴한 부인들은 이제 부엌에서 밥하고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 "The kitchen is closed."라면서 음식점에서 많이 사 먹고 때로는 만들어진 반찬을 사 오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해 먹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의 아내는 모든 국물이나 찌개나 국수 등에 사용하는 육수는 주로 멸치와 다시마와 양파를 푼고 아서 사용한다. 그래서 집에는 육수를 내는 멸치가 항상 있다. 그러나 멸치를 통째로 사용하면 맛이 좋지 않아 멸치 뚱이라고 불리는 내장을 제거해야 육수가 맛이 좋다.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은퇴한 후에 집안의 가사를 돕느라 나는 멸치 뚱 빼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전적으로 나의 일이 되었다. 육수를 내는 큰 멸치는 통만 빼면 되어 그리 어렵지 않다. 아주 바짝 말린 멸치를 왼손의 엄지손톱으로 꼭 누르면 멸치가 반으로 갈라져 뚱이 들어있는 내장을 쉽게 빼 낼 수 있다.



한 상자에 가득 찬 멸치를 하나하나 잡고 뚱 내장을 빼는 일은 힘들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든 멸치는 육수를 내는데 쓴다. 그러나 멸치는 육수 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반찬으로도 많이 쓰인다. 대가리, 뼈, 뚱을 뺀 마른 멸치는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있고 간편해서 좋다. 특히 보리밥에 물을 부어서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던 여름철의 그 맛은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또 매콤한 고추를 잘게 썰어서 이 멸치와 함께 볶아서 만든 멸치볶음은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된다. 이 멸치는 육수 내는 멸치 보다는 작은 멸치로 대가리와 뚱과 뼈를 빼야 하므로 그것을 분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 분리한 대가리와 뼈는

육수 만드는데 쓸 수 있어 처음부터 따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 뼈를 분리하는 데는 요령과 인내가 필요하다. 뼈를 분리하다가 오른손과 왼손의 검지를 날카로운 작은 뼈에 찢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왼손 엄지손톱으로 많은 멸치를 분리하다 보면 손톱 끝이 아파서 손톱을 쓰지 않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왼손 엄지로 멸치를 눌러 반으로 쪼갠 다음 뼈와 뚱내장을 분리하기도 한다. 똑바로 잘 말려진 멸치는 이러한 작업이 쉽지만 꾸부러진 멸치는 분리 과정에서 자주 뼈가 잘려지고 대가리가 척추뼈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분리된 멸치는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서 모양 없이 남게 된다. 그러나 대가리와 척추뼈가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멋있게 분리되면 마음도 흐뭇해진다. 이것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한 일이 생각나기도 한다.

25년 전 Buffalo에 있을 때 새로 설립된 한인 성당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자렛, 카파르나움을 지나 갈릴래아 호수 동쪽으로 가서 무덤가에서 마귀 들린 사람의 몸에서 '군대'라 불리우는 더러운 악령들을 쫓아내서 돼지 떼에게 보내 수많은 돼지 떼를 호수에 빠져 죽게 하고 마귀가 들렸던 사람을 구했던 게리사 지방을 돌아본 후 남쪽으로 내려와 호숫가의 Ein-Gev에서 점심 식사로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래아 호수에서 잡았던 그 St. Peter Fish를 한 마리씩 먹었는데 이때 인솔한 신부님께서 구운 St. Peter Fish의 뼈를 제일 잘 보존하고 먹는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고 해서 조심해서 열심히 먹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때 우승자는 같이 성지순례 갔고 안타깝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한민원 대학 동기였다. 점심 먹은 후 배를 타고 갈릴래아 호수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티베리아로 갔는데 그때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몇몇 순례자들은 배멀미 때문에 고생을 했었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러 갈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물이 배에 가득차게 되었을 때 당황한 제자들이 잠이 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호수)를 향해 호령하여 파도를 잠재웠다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시켰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잘 다듬어진 멸치 즉 대가리와 뚱과 뼈가 없는 멸치와 잘게 썰은 고추와 함께 볶아서 만든 맛깔나는 멸치볶음을 밥상에 올렸을 때는 한껏 흐뭇하기도 했다. 아내는 이 멸치볶음을 더 좋아하고 나는 지리멸치볶음을 더 좋아한다. 또 대가리와 뼈와 뚱내장을 빼고 형태를 유지한 채로 젓갈로 짬뽕하게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Flat Fillet Anchovy 라 불리는 서양식 멸치 젓갈도 좋아한다. 이 Fillet Anchovy는 이스라엘 성지순례한 다음 해에 독일에서 자동차 rent 해서 두 동서 부부와 함께 모두 6명이 3주간 같이 밥도 가끔 해 먹으면서 Europe Alps를 여행할 때 Italy와 Swiss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밥반찬으로 아주 좋았다. 그때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 지금도 상추쌈을 해서 먹을 때 아내는 고통어조림과 필렛 앤초비를 밥상에 올려놓곤 한다. 앤초비가 들어있는 Pizza도 독특한 맛을 내어 pepperoni나 beef가 들어있는 피자보다 앤초비가 들어있는 피자를 나는 더 좋아한다.

멸치는 바닷물 속에서 나오면 즉시 죽어버려서 어부들은 멸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에서 어망으로 잡은 멸치를 끓여 보관한다. 많은 양의 멸치는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멸치 젓갈을 만드는데 쓰이지만 바짝 말린 멸치는 이렇게 육수를 내거나 멸치볶음 등 반찬으로도 쓰인다. 멸치는 Calcium과 Omega-3 fatty acid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멸치는 아주 작은 생선이지만 우리 식생활에 꼭 필요한 생선이다.

## 농담 골목

### 그것 참 좋은 생각

어느 날 공상에 잠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난 한 번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내가 반갑다는 듯 말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예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하세요."

### 표도 안 난다

어느 날 부부동반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속옷과 특히 브래지어를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끌길래 참다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다 "여보, 브래지어 안 하고 가도 되잖아, 별로 표도 안 나는데..." 했더니 아내 왈, "당신 지금 뭐라 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 팬티 입는데 뭐라고 한적 있어요!"

### 직업별 싫은 사람

내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알느니 죽는것이 낫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한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 이덕승(60)

# 흔적

노영일(68, 시카고)



남미 페루, 안데스산맥의 첩첩산중 높은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산 흔적이 있다. 아무런 기록에도 없던

이 공중도시, 잃어버린 도시가 1911년 예일대학교 교수 하이럼 빙함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어 발굴되었다. 정밀한 석조



기술로 지어진 왕궁, 신전, 주택, 계단식 경작지, 천체관측기, 상수도 시설, 등등의 잔해가 남아 있다. 매우 발전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이다.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잉카인들로 추측되는데 잉카 문화에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15세기경 스페인 정복자들이 쫓겨 숨어 살던 집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페인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스페인 정복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해석이 된다.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는 말인가? 스페인인들이 유럽에서 문혀온 흥역에 걸려 몰살했는가? 그러나 가축들의 뼈는 남아 있어도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의 뼈 같은 자취는 전혀 없다. 살기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였는가?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 중인 건축물의 자취가 남아있는 걸 보면 살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꺼졌는가?

남미 페루 남쪽 태평양 해안가 나스카에 방대한 사막지대가 있다. 이곳에는 나스카 라인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현재까지 358개의 도형이 발굴되었고 약 800마일 (1300 Km)에

걸쳐 방대한 지역에 그려져 있다. 땅에 서서는 보이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아야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다. 요즘은 드론을 이용하여 연구하기도 한다.



이 그림들을 누가 그렸는지 모른다. 잉카인들이 그렸는가?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의 그림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주인의 그림까지 있다. 정밀한 기하학적 도형들도 보인다.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을 리 만무하고 그렇다면 외계인이 이 땅에 내려와 그렸다는 것인가? 그림을 그린 목적도 추측할 뿐이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다보라고 그렸는가? 천체 관측용인가? 토지 분할이나 관개 사업용인가? 비행장 활주로처럼 우주인들이 지상에 착륙할 목적으로 그려 놓은

것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Stone-henge, 이스터 섬의 moai 등과 함께 세계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다.

\*\*\* \*\*

나는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크다. 연전에 남미 여행 중 페루에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잠시 생각하게 한 마추픽추와 나스카가 떠오른다. 오랜 옛날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 경이롭고 감탄스러웠다. 개체 보존과 종자번식의 기본 본능만을 위하여 살다 가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한 평생을 살면서 무슨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필부도 죽으면 최소한 무덤에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이라도 남기고 싶어 한다. 이 흔적 중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유산 (Heritage, Legacy)이라 한다. 이는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흔적을 말한다. 이런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를 감동시킨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의 고뇌, 열정 등 정신과 감정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남길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 100세 환자의 즐거운 기억

김정훈 (99, 휴스턴)



노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는 환자로 부터 100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였다. 안타깝게도 아들과 함께 스카우트 캠핑을 가야 했기에 생일 파티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백 개의 풍선도 날리고 같은 assisted living facility에 사시는 20-30세나 어린 연하남(최소 70대)들과 댄스도 같이 즐긴 성대한 파티였다고 한다.

내가 처음 이 고상한 할머니 환자를 만난 건 이분이 92세였던 때였는데 그때는 20세 연하의 남자 친구도 있었다. 이분이 그 남자 친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의사와 환자로), 이 연하남도 내 환자가 되었다. 두 분이 참 점잖게 연애를 하신 걸로 기억한다. 비록 오랜 연애는 하지 못하였지만, 은퇴촌 아파트에 혼자 사시던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주말마다 찾아가서서 같이 차도 드시고 옛날 재즈 음악 틀어 놓고 댄스도 즐기시곤 했다. 한 번은 무슨 일로 할머니가 빠치셔서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찾아와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녀두리를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나보고 전화 한 번 슬쩍 넣어 달라고 하시길래, 마침 다음 주에 할머니가 외래에 오신 날 할아버지가 좀 우울하게 보인다고 넌지시 알려 드렸더니 그 다음 날 당장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전화를 나한테 주셨다. 노년 내과 의사로서 두 번째로 뿌듯함을 느낀 하루였다. 안타깝게도 20세 연하 남자친구는 2년 뒤에 심장질환으로 먼저 돌아가셔서 두 분의 짧았지만 깊은 연애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할머니가 드시고 있던 약이다. Chlorpromazine이라고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데 쓰는 약인데, 1950년 대에 개발된 1세대 초창기 antipsychotic 정신분열 치료제다. 학교 다닐 때는 좀 들었던 약 이름인데 수련이 끝나고 실제로 그 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처음 본 것 같다. 할머니께서 젊었을 시절, 즉 40대 직장 다닐 때 자기를 스토킹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불안증이 심하게 와서 드시기 시작하셨다는데, 그게 아마 1960년 대 였으니까 적어도 50년 이상은 드시고 계셨다. 할머니 말씀이 "몇 번을 끊으려 했는데 불안해지고 두통도 심해지고 해서 끊을 수가 없었어. 이 약 끊게

하려고 노력한 의사들 보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있으니까 나 그냥 계속 먹을래" 하셨다.

Risk vs. Benefit ratio를 따져 보기엔 9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선 데이터가 없었고, 불현듯 드는 "Don't rock the boat" 라는 생각에 부작용이 없는 이상 계속 쓰기로 했다. 이 약 드시면서 연애 생활도 잘 하셨고 100세 생일 파티도 잘 치르셨으니 적어도 benefit가 risk보단 컸었다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내가 직장을 옮기는 통에 이 할머니랑은 100세 생일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 "지금도 그 약 드시면서 잘 살아 계실까? 아니면 그 약 땀에 Jeanne Calment 여사의 122세 세계 인류 최장수 신기록을 깰 수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정도 된다. 노년 내과 의사들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신문에 obituary를 보는 것인데 아직(?) 그 할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약을 최고로 오래 먹은 사람 같은 기네스 기록이 인정된다면 아마도 Chlorpromazine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도 놀랄울 것이 없을 것이다.

백세 이상의 초고령 어르신들을 한 연구를 보면 재밌는 것이 많다. 마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초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장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중에 흥미로운 것들은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 같진 않다는 점이다.

동부에 있는 100세 이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 노인 리서치 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100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절반이 과체중이고, 30-40 퍼센트는 운동도 별로 하지 않고 남자들의 20-30 퍼센트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20 퍼센트는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근데,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남들은 다들 적어도 70대에 접어들면 하나씩 생기는 성인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매, 암 같은 질환들이 적어도 이분들한테는 20-30년 뒤어나 찾아

온다는 것이다. 초고령 어르신들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70-80대 연령대의 사망 원인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이분들은 이런 노화로 인한 성인병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20-30년 늦게 발현되고 그리고 이 병들이 생기더라도 사망까지 그 병을 앓는 기간이 무척이나 짧아서 그들의 건강 나이는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배울 것은 과체중, 술, 담배를 해도 장수에 지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노화로 인한 성인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막강한 유전자적 보호 장치를 발견해서, 그런 유전자적 행운이 없는 나 같은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낸다면 백세 이상을 건강하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희망한다.

현재 주목받는 gene들은 cholesterol metabolism과 glucose metabolism에 관련이 있는 gene들 (APOE, CETP, APOC3) 혹은 transcription factors와 관련된 FOXO3 등이 있다. 이런 gene의 downstream or up-stream pathways 등이 cell metabolism이나 regulation에 어떤 영향을 줘서 노화 현상을 늦추거나 촉진시키는지를 알아 내면 거기에 작용하는 약물이거나 intervention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골골 팔십세가 아니라 팔팔 백세가 여기저기서 파티를 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 출근길에서



김병오(69, Haymarket VA)

눈부신 아침이 질주하는 등푸른 고속도로 I-95번 神殿으로 가는 길

구름과 文章이 마중하듯 바람으로 서 있고 먼지 쓴 수레국화 키 높여 손짓하던 마지막 出口 11번

고속의 갈림길에서

가슴은 뱃고동을 울리고 숨결은 파도 치고 눈물은 하얀 泡沫이 되었다

사랑들이 눈물들이 기어이 반쪽의 날개 솟구쳐올라 대서양 넘어 이니스프리 섬 흥방울새 소리를 들었다

휘청 목줄에 걸린 원심력 수직으로 추락하고

한 순간의 미동도 반역도 없이 우연처럼 정말 거룩한 우연처럼 한 쪽으로 한 쪽으로만 꺾여 달리던 길

거울 속으로 사라지던 구름꽃 핀 언덕과 작은 오두막집

모면의 안도와 모멸의 눈물이 交叉하던 갈림길에서

이 작은 위안은 매일 매일 福券처럼 축복처럼 그리움처럼

신전 앞에서 필력이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백세가 되면 1년 사망률이 30 퍼센트가 된다. 그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올해로 104세가 되실거다. chlorpromazine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엔 너무나 억지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 사신 할머니는 어떤 막강한 gene을 갖고 계시길래 그렇게 건강수명을 유지하실까 새삼 궁금해진다.



# 링컨 대통령 사면권 행사 일화

이희백 (61, 시애틀)



대통령이 취임 후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일은 자천, 타천으로 공직에 임명을 바라는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다.

Charles Guiteau이란 사람은 불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를 불란서 대사에 임명해 주지 않는데 분개해 미국 제20대 대통령 James Garfield를 저격해 2개월 후 사망케 한 일도 있다. 링컨 대통령에게도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람들이 밀어닥쳤다. 하도 많은 부탁에 시달리는 대통령에게 “이러다간 대통령께서 지쳐서 큰일 나겠소” 하고 걱정하는 보좌관에게 링컨은 “그러나 다들 형편이 절실하고 조그마한 요구들이니...” 하면서 청탁자들을 계속 면접했다. 다음은 사면(pardon) 청원이다. 전쟁 중이라 더욱 많았다. 한 예를 들면 버몬트 주 출신 사병 William Scott에 대한 사면 신청 건이다.

그는 자기 보초 근무 전날 아픈 동료를 대신해 보초를 자원해서 대리로 서주구 다음날 다시 자기 차례 보초를 썼다가 새벽녘에 졸아 근무태만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이를 알게 된 Mary Lincoln은 남편에게 감형해 줄 것을 애원했다. 아들 Ted도 어머니를 거들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가 바로 아버지 자식이고 전투 후 지쳤고 하루 종일 행진 후 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졸았다면...” 하면서, 메리도 재차 그 젊은 사병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병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링컨이 아니지만 자신의 간섭이 군사 규율을 문란시킬 것이라 선뜻 받아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메리의 설득을 받아들여 처형 전날 군 사령관 George McClellan 장군사무실을 찾아가 사면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Scott의 구명을 청원한 버몬트 주 상원의원 Lucius Chittenden이 “일개 사병 문제로 대통령을 괴롭히는 자기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자 링컨은 “Scott의 생명이 그에게 귀중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생명과 똑같이 귀중하오. 어느 귀족의 머리가 잘린 데 대한 어떤 스코틀랜드인의 말, ‘이것은 한갓 조그마한 머리의 문제이지만 그에게는 매우 귀중한 머리로, 불쌍한 친구, 그가 가진 단 하나의 머리 지.’라고 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소.” 하는 말로 상원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주었다. 이와 같이 링컨의 사면 대상은 대개가 약자였는데 사면권을 너무 남용한다는 비난에 대해 자기로서는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못한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던 차에 약자가 아닌 강한 자에게 사면권을 행사, 형을 감면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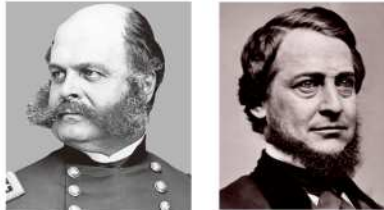
1863년 1월 1일에 링컨이 공포한 노예 해방선언은 그의 예측대로 크나큰 과문을 가져왔다. 노예 문제로 연방을 탈퇴한 남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부에서도 우리가 “negro를 위해 싸우단 말인가? 당장 싸움을 중지하고 평화를 되살리자”라는 소위 ‘Copperhead’ 민주당 반전파의 비난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런 판에 링컨이 원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하이오 지방군 사령관인 Ambrose Burnside 장군(hairstyle, sideburns는 원래 burnside였었는데 19세기에 들어 Burnside 장군으로 인해 변경된 단어라고 함)은 포고령 38호를 선포해 적에게 지속적으로 동정을 보내는 언동을 이 지방에서는 허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체포, 군법 재판회부, 구금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때 Copperhead의 수장 격인 오하이오 하원 의원 Clement Vallandigham은 이 ‘실패한 전쟁’을 규탄하면서 이 ‘분쟁’은 군인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국민들이 ‘링컨 임금님’을 ‘왕좌’에서 끌어내야만 끝날 수 있다고 군중을 선동했다. 발란디검(Vallandigham)의 성명을 자세히 검토한 번사이드(Burnside) 장군은 밤중에 발란디검을 침실에서 끌어내 수감하고 전격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발란디검이 신청한 habeas corpus(인신 보호 영장)는 기각되었다. 시카고 타임스가 이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자 번사이드 장군은 이 신문을 폐간 시켰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을 조간신문을 읽고서야 알게 된 링컨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번사이드 장군이 취한 조치에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취한 행동을 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이 일으킬 정치적 손실을 누구보다 더 잘 내다본 그의 예상대로 이 처사에 대한 비난은 Copperhead나 민주당뿐 아니라 충실한 공화당에서도 일어났다. 상원 의원 Trumbull은 이 검거 자체도 문제라니와 이런 독단적인 체포가 거듭되면 시민 사법부는 군사 사법부에 의해 점령되고 정부 전복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Burnside 장군과 Vallandigham 의원

국무장관인 Seward의 한 친구는 그에게 “이 검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가져오고 연방에 충성한 북부 내에서조차 내분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Seward도 이에 동의했다. 어떤 안전에 전원이 찬성하는 일이란 극히 드문 내각회의조차 발란디검 체포에 대해서는 전원이 일치해서 반대했다.

링컨은 타협점을 모색했다. 공식적으로는 발란디검의 체포를 지지하나 발란디검의 감금을 해제하고 대신 반군 지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정에 “(발란디검)가 순교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그의 악역의 힘을 꺾어 버렸으니” 하고 만족을 표했다.

발란디검은 백기 엄호 하에 적 테네시 지역으로 추방되었는데 그가 즉시 버뮤다를 거쳐 캐나다로 도망치자 그의 명성은 더욱 손상을 입었다. 후에 캐나다 망명지에서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전쟁 장관 스텐튼은 즉시 시카고 타임스를 복간시켜 언론자유를 수호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링컨은 번사이드를 지지함과 동시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자유’의 제한을 극소화했다. 후에 링컨은 ‘악명’ 높은 시카고 타임스 폐간을 지지하고 복간을 반대하는 극단주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민들의 자유 제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염려한다. 시민 자유 제한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범할 위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관용을 베풀도록 해야 한다.”

발란디검 사태 처리 후 링컨이 당면한 우선 문제는 번사이드 장군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일이었다. 자기의 처사에 전각료가 반대했다는 소식에 접한 번사이드 장군은 즉시 사의를 표명했으나 링컨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료들이 이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으며, 다들(각료들) 장군을 이해하고 있으니 삼심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링컨은 이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 동심초

나두섭 (73, 남가주)

누가 ‘동심초’를 불러 달라고 한다. 동심초? 그거 여자들이 하는 노래 아닌가? 들어 보았다. 멜로디가 좋았다. 가사가 애뜻한 감정을 표현한듯하였다. 여자들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많이 불렀다. 그렇지 남자라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동심초는 무슨 뜻일까? ‘꽃잎은 하얗고 없이 바람에 지고...’ 이렇게 시작한다. 꽃에 대한 이야기 인가? 후반에는 ‘...한 것되어 풀잎만 맺으려는고...’라는 가사가 나온다. 이건 푸른 풀 이야기이네. 영어로는 다른 번역도 있지만 ‘The grass of the same heart’로 되어 있다. 같은 마음을 맺는 풀이라고나 할까? 어떤 이는 ‘동심초’는 꽃이나 풀이 아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한 일종의 사랑의 편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들이 우승하는 것들을 종종 본다. 피아노 부문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성악 부문에서도 그렇다. BBC 2023 카디프 콩쿠르 가곡 부문에서 우승한 한국 분이 한복을 입고 ‘동심초’를 부른 것이 있다. 한복을 입고 부르니 동양적 색채가 물씬 풍긴다. 감격스럽게 느껴진다. 같은 민족이라서 느끼는 감정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동심초’의 가사는 당나라 중기의 여류시인 설도가 쓴 4수로 된 연작시 ‘춘망사’ 중의 2수를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호는 안서)이 1943년에 번역한 시로 김성태 교수가 1945년에 가곡으로 작곡하였다. 처음에는 원시의 작가가 신사임당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설도는 여류시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기생



평가하는데 달렸다는 판단하에 복잡한 군사 구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차라 이 발란디검 구속사건을 계기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링컨은 군 복무 기피 민간인을 감금하는 군부 처사가 가장 비판적인 뉴욕 민주당 하원 의원 Erastus Corning에게 보낸 편지를 6월 12일 New York Tribune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번사이드 장군을 옹호했다.

“이런 구속은 평시에는 위헌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이고 전시에는 habeas corpus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상기시킨 후 발란디검의 구속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군대 모집을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았고 군인 이탈을 조장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구속된 것임을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군이 이탈병을 막기 위해 ‘사형’이란 극형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링컨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마음으로 탈영한 사병은 사정 없이 사형에 처하는 내가 이 사병이 이탈하겠끔 유도한 교활한 선동자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려

이었고 용모가 출중하고 시도 쓰고 악기도 잘 다루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가세가 기울어 기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 같다. 그중에는 재주가 범상치 않은 분들도 있었다. 기생이 되었다고 재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기생이며 시인이었던 황진이의 작품은 김소월의 시처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다. 황진이의 ‘꿈’을 예로 들어 보자.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것도 김억(안서)이 번역하였다. 나는 이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만큼 마음에 와 닿는다.

중국에는 고대에 4대 미인으로 불리는 여인들이 있었다. 월나라 서시, 삼국시대 초선, 한원제 왕소군, 당나라 현종 양귀비를 말한다. 이들은 모두 설도 이전의 사람들이었고 설도의 미모가 아주 뛰어나 그녀를 5대 미인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설도는 당시의 여러 명사들과 교류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10살 연하의 원진과의 가까웠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춘망사’는 그를 연모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연인을 그리는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것은 독일의 문호 괴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설도는 직업상 좋은 사람 만나 안락한 가정을 꾸미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처음 만난 연인과 결혼해서 일평생을 같이 해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 멀리 초등학교 시절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결혼해서 매일 보고 산다면 보고 싶어 할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첫사랑과 살든 두 번째 사랑과 살든 사랑했던 이성과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로맨틱한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 사진: 화가 모네의 집 정원

선 안된단 말인가? 이것은 아버지, 형제, 또는 친구들이 공적 석상에서, ‘그는 잘못된 편을 위해 싸우고 있다, 비열한 국가의 악한 정권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 탈영하라’고 교사하는 이들이 일개 사병의 탈영보다 덜 해를 국가에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편지는 북부 전 지역에서 찬사를 받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솔직하고 극명한 결정”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극찬했다. 민주당 측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Edward Everett는 말하기를 링컨은 ‘발란디검의 구속’을 옹호하지 않고서도 이를 ‘완전히 방어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Edward Everett는 몇 개월 후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의 너무나 유명한 단 2분의 연설, ‘Gettysburg Address’를 하기 전에 두 시간에 걸쳐 연설을 했던 유명한 웅변가다. 링컨의 지지자들은 스틸에 넘쳤다.

이 편지는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이를 읽은 천만 명의 국민들은 그의 논리에 완전히 매혹되었고 그의 천재적 정치 수완에 박수를 보냈다.



# Salzburg의 추억

이건일 (68, 남가주)



중학생 시절 모차르트 음악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 이후 나는 늘 그가 태어난 도시인 Salzburg (소금성)에 가보고 싶었다. 버르고 버르다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자 드디어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우선 Muenchen-Prague-Budapest-Vienna-Salzburg를 도는 그룹 투어에 참가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잘츠부르크에서 그룹에서 떨어져 남아 며칠을 더 보내게 되었다.

그룹 투어의 마지막 밤, 특별히 준비된 Private Piano Recital을 들으러 'Sound of Music'에 나왔었다는 어느 부자 귀족의 저택으로 갔다. 넓은 홀에 구식 Boesendorfer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Mozarteum 교수로 37년간 (1953- 1990)이나 재임하였던 Prof. Hubertus Boese 씨가 연주를 하여 주었다.

본 바닥에서 듣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음악!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이튿날 그룹과 작별하고 택시를 잡아타고는 잘츠부르크 구시가지 내에 있는 Hotel Goldner-Hirsch에 짐을 내려놓고 시가지 관광에 나섰다. 이 호텔은 구시가지 중심부인 Gettridegasse에 있어 걸어 다니면서 관광이 가능하고 더욱이나의 제일 목표인 Grosse Festspielhaus (대 축제 음악당)이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었다



Hohensalzburg 성에서 내려다 본 Salzburg 구시가지와 Salzach 강

잘츠부르크는 서기 700년 경에 St. Rupert에 의하여 세워졌고 그후 Archbishop이 통치하는 영지가 되었다. 13세기에는 그 통치자에게 '신성로마제국 왕자 (Princes of the Holy Roman Empire)' 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된다.

Salzburg Archbishop의 힘은 이태리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 권력의 근원은 근처 Salzkammergut의 소금 광산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도시의 구시가지 바로 뒤에 있는 큰 언덕은 그 밑이 소금 광산 이었고 소금을 파낸 빈자리는 지금도 이 도시에서 매년 여름 벌어지는 모차르트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이 도시의 과거 지배자들 중 세 명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Wolf Dietrich von Raitenau는 1587년 아취 비숍으로 선출되어 그가 자라났던 이태리의 메디

(전면에서 계속) 병어리가, 대부분의 여성은 소경이 되겠다고 한단다. 여자한테 말을 못 하게 하는 것만큼 큰 형벌은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출랑출랑 나불나불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매력인가. 진화학적으로도 말은 글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고등동물이라 여성의 언어중추가 남성보다 발달되어 있고 말로는 남자가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근

치가의 영향을 받아 이 도시를 북쪽의 로마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그는 Salome Art라는 절세의 미녀를 정부로 데리고 15명의 아이를 낳게 하였으며, 또 그녀를 위하여 Mirabell 성을 짓게 하였다. 그 성 안에 있는 '대리석 방(Marmosaal)'에서 있던 모차르트의 실내악 연주회 표를 출국 전에 미리 구할 수 있어서 운 좋게도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아! 얼마나 기다렸던 기회였는가! 나의 십 대 때부터의 꿈을 드디어 달성하게 되었구나! 만감이 교차하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를 쓰며 음악을 경청하였다.

프로그램은 Mozart; Piano Quartett G minor KV.478, Beethoven의 작품; Mozart Opera 'Die Zauberfloete'에서 아리아 'Bei Maennern welche Libebe fueh-len'를 주제로 한 7개의 변주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Schubert; Piano Quintett 'Die Forelle' 등의 순서로 짜여져 있었다. 역시 본바닥의 음악답게 그 연주 솜씨들은 훌륭하였다.

그다음 날은 Salzburger Marionettentheater (잘츠부르크 인형극 극장)에서 역시 모차르트 작곡인 'Die Zauberfloete (요술피리)'를 인형극으로 하는 것을 감상하였다. 이곳에서는 인형극이 예술의 한 장르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어서 세계 각처에서 이 인형극 오페라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저녁을 먹으러 예약된 극장 음식점인 Setrnbraeu로 갔다. 안내를 받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더니 지배인이 와서 오늘 큰 단체 손님들이 나머지 테이블들을 예약하였으나 사정상 취소를 하였으니 우리 부부 밖에 손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취소하고 환불하여 줄 것이냐고 물으니 역시 German 민족다운 대답을 하였다.

이왕 준비된 것이고 음식, 가수, 연주자 다 대기하고 있으니 우리 둘만이라도 놓고 순서를 진행하겠단다.

내가 너무 황공하여 그리하여도 되느냐고 거듭 물어보았으나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냥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보자는 심사로 앉아 있었다.

모차르트 시절 먹던 음식으로 준비된 메뉴대로 음식이 나온다.

수제비 같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들은 숲을 시작으로 '가시고기 (Zander)' 튀김, 버터에 버무린 시금치, 과일즙을 뿌린 비etz 덩이로 튀긴 페(!), 마지막으로 잘츠부르크식 밀가루 덩이 삶은 것, 참 이상한 요리들이었다. 별로 맛도 없었으나 모차르트가 먹던 음식이겠거니 하면서 먹긴 먹었다.

음식을 서브하는 사이사이에 음식 나르던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번갈아 그 시대 의상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주로 모차르트의 성악곡이나 아리아들이었으나 간혹 'Sound of Music'에 나왔던 노래도 불러 준다. 순서가 다 끝나고 나니 출연진이 전부 나와서 인사를 한다. 마누라와 둘이서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열심히 박수를 쳤으나 그래도 미안하여 결국은 음식값의 두어 배나 되는 팁을 주고 말았다.

출연진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그 외 유럽 각처에서 이곳 모팔테움에 음악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었다. 우리는 너무 과분한 대접에 황송해 하면서 이곳을 나왔다. 이것으로 일차 잘츠부르크 여행은 끝났다.

그 다음 해에 우리는 비엔나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시 이곳을 찾게 되었다. 역

래에 각 정당의 대변인으로 여성을 내세우는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문명이란 것도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애가 한 살 정도가 되면 의미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모방인데 대개는 엄마의 말을 흉내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자들은 수염이 있으나 여자는 수염이 없는 것을 보면 오묘한 창조주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팽 고회(大烹高會)

Good Food, Best Party!

조중행 (69, 시카고)

몇 달 만에 꼬마들을 만났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예상치 않게 우리 집 부엌을 수리하게 되어 아들네 집과 우리 집 중간의 한국 식당에서 아들네 식구와 만났다. 이번 July 4th, 독립기념일 연휴에 시애틀을 외갓집에 갔다 어제저녁에 돌아왔으니 꼬마들도 피곤하겠고, 방금 서울에서 돌아온 두 노인네도 지금 시차로 고생 중이지만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이다. 두 늙다 두세 달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다. 한두 시간 아들네 식구와 점심을 먹고 떠들다 돌아오는 길, 아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잠깐씩 즐면서 살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성북동 간송 박물관에 가면 얼마 전에 국가 보물로 지정된 추사 김정희의 예서(隸書) 서예작품 "대팽 고회(大烹高會)"라는 대련(對聯)이 있다. 옛날 중국의 비석 글씨에서 발전시킨 독특하면서 우람한 그의 필체로 죽음을 앞에 둔 말년의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방법--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던진다.



대팽 두부 과강채(大烹豆腐瓜薑菜):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과 나물이고 고회 부처 아녀손(高會 夫妻 兒女孫):

시 같은 호텔에서 묵으며 이번에는 모차르트, 베르디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Salzburg Festspielhaus의 대, 소 연주장과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되는 순서들을 매일 관람하였다.

며칠을 음악회만 쫓아다니다가, St. Wolfgang 호수 옆으로 숙소를 옮기고 Salzkammergut 관광에 나섰다.

비오는 날 Gruener veltliner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백포도주)를 한잔하며 바라보는 호수의 경치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St. Wolfgang 호수도 좋았지만 나에게게는 Hallstatt 호수가 더 좋았다. 오스트리아 관광 소개 포스터나 책에 그 사진이 꼭 나오는 그런 경치를 가진 곳이다.

땅이 좁아서 산비탈에 바짝 붙어 마을이 발달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케어내던 소금 광산이 있었고 지금은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여 놓았다. 나는 동굴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대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산의 정상부에 있는 찻집에 앉아서 주변 경관을 한나절 감상하였다. 절경

만약에 여자가 콧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라나서 입을 가리거나 턱수염이 길게 자라나서 가슴을 덮어버리면 애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거나 젖을 빠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대거나 남아일런은 중천금이요 여아일런은 가랑잎이다 또는 미꾸라지나 메기도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없는걸 보면 여자란 물고기보다도 못한 하등동물이라고 매도하는데 이

좋은 모임은 부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모임이라네.

세한도에서 우리에게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는 그 푸르름을 그림으로 표현, 변치 않는 우정과 충성심의 아름다움을 그렸던 추사는 친구를 위해서 쓴 노년의 이 서예 작품을 통하여 또 하나의 화두를 21 세기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김소함, Well Being, 환경, 가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참으로 오랜만에--한 1년 만에(?) 버루를 씻어 놓고, 악필(惡筆)인 줄 알지만 체본을 여기저기 찾아보며 몇 자 써본다. 예서(隸書)는 아직 꿈을 꿀 처지도 못되지만 한 백장쯤 써 보면 나아질까? 몇몇 동창들 중 서예의 대가들이 있는 줄 알지만, 이제 선생도 없는 독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장들의 부실함에 핑계를 대며, 감히 추사의 글씨 옆에 나의 악필을 써놓고 좋다고 보고 있는 나의 뻔뻔함이라니? --여기 시카고 집에 있는 연장들만 갖고서라도 이 한여름 몇 주일 여기 있는 열네 글자를 열심히 써 볼 생각이다.

"It's never too late to start. It's always too late to wait."



이었다. 다시 내려와 이번에는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 기차역에 연결하여 주는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경치를 감상 하였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호수 건너는 보트 시간과 열차 시간이 정확히 연결(coordination) 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온 사람이 보트를 타거나, 보트를 타고 온 사람이 기차를 타는데 별 시간 손실 없이 각자의 목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놓았다. 우리나라, 아니 심지어 미국에서도 가능할 일일까 생각해 본다.

Germanic efficiency! 며칠 동안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 막 빛은 Gruener veltliner 흰 포도주에 호수에서 갓 잡아 올린 송어(Die Forelle) 튀김을 즐겼다.

오스트리아는 사람들이 그리 친절하지는 않으나 경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 소금성과 호수를 즐기는 두 번의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고 아쉬운 마음으로 모차르트의 고향을 떠났다.

는 여자를 수염 없는 수다쟁이로 만든 창조주의 참뜻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 말이 말을 낳으니 말 많은가 하노라. 그리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월호 제14면에 콩밭을 콩바(combat)로 바로 잡습니다.



# 늙어간다는 건 그저 지워나가는 거, 흔적을



김창남(69, 대뉴욕)

늙어 간다는 것은 작은 것 들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일이다. 아니다. 온갖 소소한 것 들에서 즐거움이 행복이 끊임없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다. 나이 적당히 들다 보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게 즐거움, 눈에 띄는 게 기쁨, 그 소재들이다.

이틀테면, 약을 먹어 (플로맥스) 오줌의 방광에의 체류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 상담 중 팬티가 흠뻑 젖는 일(요실금 尿失禁- 오줌이 체류지(방광)를 무단이탈하는 현상)은 더 이상 없는 거, 오줌과의 아랫도리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정떨어진지 오랜 연인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척척함을 체험해 본 이는 알리라. 그런 성가신 밀회가 끝장났다는 게 얼마나 후련한 건지, 또는 양치질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대변보고 플러쉬 하는 걸 깜빡 잊은 번기가 눈에 떨 때의 안도감, 이번에도 아내한테 들키지 않고 넘기는구나 하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행복감, 혹은,

한아름에서 나와, 나는 카트를 끌고 차로 향한다. 아내는 옆의 파리 바셋트에 들러 식빵이며 롤 케익 등을 산 후 차로 올 것이다. 그동안 나는 카트에 실린 그로서리를 트렁크로 옮기는 임무를 수행할 터. 짐을 카트에서 트렁크로 옮기려면 우선 차를 찾아야 한다. 그게 순서다. 현대 차란 놈이 도망이라도 갔나? 보이질 않는다. 분명 이 근처에 세웠는데 종적이 없다.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내 보습을 웬 사내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차가 도망갔구나! 아는 것 같은 눈치다. 무시하기로 한다. 제 차 못 보셨어요? 묻는다고 그 사내가 내 차를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난감하다. 아내 오기 전에 찾아야 하는데... 호통까지는 이미 들어온 지 오래니 마음 쓸 일 아니고 이어지는 한숨도 견딜만 한데 그 뒤의 조롱 섞인 측은하다는 눈길은 아니다. 버티기 힘들다.

이놈, 왜 거기 있는 거야!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 멀지 않은 데, 길의 “ㄱ”자로 꺾이는 모퉁이에 은빛 내 차가 쇠송하다는 듯이 엮여 있다. 그리로 맹속으로 카트를 몬다. 왜 도망갔느냐고 책임 추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아내가 오기 전에 임무를 마쳐야 한다. 측은의 눈길은 피해야 한다.

아내가 도착했을 때는 마지막 아이템 대파를 트렁크에 넣고 문을 닫는 순간이었다. 어디서 어슬렁거리다 이제야 실었어! 호통도 한숨도 측은한 눈길도 아니다. 아직 숙제 안 한 초등학생을 향한 꾸중 같은 정도. 도망간 차를 찾아 해맸다는 얘기는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지 이미 오래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넘긴 이 스틸이 즐거움 아니면 무어라!

아내하고 화창한 봄날 동네 산책로에 들어섰을 때 들리는 딱따구리 소리에 고향 생각이 나 마음이 전해진다거나 흔들린다든가 하는 일 더 이상 없다. 기실 난 서울에 살면서 딱따구리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미국에 와서야 딱따구리 따따따 따다다 하는 소릴 참 들어봤다. 그래도 딱따구리 소리를 들으면 고향 생각

이, 두고 온 산하가 떠올라 가슴이 추연해지는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분에 잠긴 적도 있었다. 추억이나 기억은 워낙 거기 있던 게 아니라 추후 만들어지고 윤색되는 거라던가? 하여간 그런 마음의 동요 이제 눈에 띄지 않는다. 덤덤하다. 아니 의연하다. 소소한 일에 마음이 움직거리려야 쓰겠나? 흑자는 무더졌다, 흐려졌다, 메마르다, 이렇게 감정의 굴곡이 없다면, 이게 사는 거냐? 운운하겠지만 쓸데없는 감상으로 마음이 격랑에 휩싸여 아까운 에너지, 정서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아니 슬기로운가?

생글거리며 다가온다. 여기는 내 오피스 대기실이니 필경 환자일 텐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난다. 오피스 매니저한테 눈짓으로 물어보려 하나 그녀는 캐비닛에서 무언가 뒤지느라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여자 누구야? 하고 소리쳐 묻는다는 건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한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여태 내 이름도 몰라? 환자로선 자못 실망스러울 거다. 비 윤리적이다. 어찌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한테 대 놓고 모욕을 주는 수가 있소? 윤리위원회에 제소라도 한다면 낭패다. 생글거리는 얼굴이 점점 다가온다.

나는 당황한다. 환자가 이제 알아차렸을 거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또 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감추려 애쓰고 있다는 걸. 이 거 어찌지. 자존심 잡고 이실직고하나? 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니예요 (I am Jenny) 여전히 생글거리는데 아직 누군지 모르겠다. Jennifer, Jenny, Jenna 등이 내 머리를 휘돌아 나가지만 아무도 이 생글거리는 얼굴과 연결이 안 된다. A new rep, (제약회사 외판원)이예요. 그리고 보니 외판원 특유의 가방이 보이고 손에 든 한 묶음 팜플렛들도 보인다. 즉 이 환자의 아나 이 외판원의 이름을 모른 건 생면부지란 관계 때문이지 내 기억력과는 무관한 거다. 보통 때라면 시큰둥하게 대하며 내가 감질을 해대기 일쑤인 제약회사 외판원. 오늘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치매 증세에 대한 공포에서, 아니 치매 증세를 듣는 데 대한 공포에서. 나를 구해준 제니를 나는 칩사 모시듯 오피스로 안내한다. 제니, 오 구세주(?) 제니, 내 기억력은 멀쩡해! 그런가? 처음 보는 여자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 했던 건 잠깐 방문한, 그저 잠깐만 방문했을 뿐인, 내 안면인식 장애증에 불과했던 거야. 하여간 제니가 주던 행복감이러니.

대부분 노인네들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일부 진취적 노인네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나는 개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고 이 여의사는 개업의 막바지에 들어섰었던 듯 싶다. 이 여의사의 딸이 전화를 한다. 어머니가 정신과 의산 데 치매 끼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환자를 빼돌린다는 거였다.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였다. 나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 귀하의 모

## 지리산의 운해

정두현(61, 메릴랜드)

여기선  
소리도 움직임도 모두 사라진 듯 사늘하다

계곡마다 가득한 흰 파도  
능선을 어루만지는,  
저 멀리 섬진강 하구를 쓰다듬는,  
남해에 떠있는 섬들을 덮썩은,  
살아있는 운해를 만난

찰나.

와 ---.

언어 이전의 외 마디  
여명의 텅 빈 고요를 뒤 흔들다

여음.

계곡의 깊은 곳으로 흘러  
섬진강 하구와 남해의 섬들 사이로 사라진

적막.

내 생의 가장 가슴 저리는 적막한 순간

여운.

영혼의 심장 가느라니 흔들다

내 영혼의 창 활짝 열어 긴 여운의 떨림 가득 찬 지리산의  
광활한 허공을 포옹하다.

적멸.

친이 어디 있는지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환자를 빼돌리다니요. 또 여기 정신과 의사가 한 둘입니까? 딸은 내가 두 번 째라고 했다. 당신의 환자를 빼돌리는 두 번째 정신과 의사라는 거다. 나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는 거다. 정신이 오락가락한지 한참 된단다. 이 노 정신과 의사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환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고통을 파라노이아(편집증)라는 지극히 기초적인 심리적 방어기전으로 간단히 해결한 거다. 모두 저놈 탓이다. 흉측한 원흉을 드디어 찾아냈을 때의 이 노의사의 안도감일 것이러니 상상할 만하다. 이 아니 행복인가! 굶었던 스스로의 자존심을 흠집 한 군데 없이 말끔히 복원되지 않았나?

고난도 기술을 고안해 내는 늙은이 예 하나 더.

잊어버리는 기술은 잊어버린다는 사실마저 스스로는 결코 모르는 경지로 업그레이드시킨다. 왜 남의 물건을 감춰! 호통을 친다. 물건 엉뚱한 데 놓고 엉뚱한 데 놓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있고 식구 중에서 누군가 범인을 색출/창조해 내려한다. 이게 (식칼) 왜 여어 (침대 이불 속에)? 여기다 놓은 게 누구야? 난이도가 높은 플롯이지만 총총히 엮어내는 게 늙은이들의 탁월함이다.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 학습해서 치는 것 아니라고 알고 있다. 모국어는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소위 언어 본능이란 타고난 자질 덕분에 저절로 익혀지는 거란다. 기는 것 걷는 것도 별 과외수업 없이 그저 알아서 기고 알아서 걷는다. 늙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지시나 설명 없이도 스스로 척척 알아서 늙는다. 이마의 주름살이 가까스로 눈에 띄기 시작하면 어느새 늙음이란 친구는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한 해외연수 없이도. 온갖 잊어버리기 잃어버리기에 통달하게 된다 썰본 잃어버리는 건 기초, 사람 이름 잊어버리는 거 식은 죽 먹기다.

그렇다! 늙어 간다는 것은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투성이다. 하지만 이들은 보다 근본적 과정의 끝에 나타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늙어간다는 건 완성에 이르는 도정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도정의 마지막 단계다.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는 과정인 거다. 희망도 지워나가고, 절망도, 환희와 좌절도, 또 그 기억들도 지워 나간다. 도중에 누리는 갖가지 소소한 즐거움들, 그들은 부산물일 뿐이다. 결국 완성에 이르러서의 극도의 즐거움 極樂이 늙어간다는 것의 결과물인 거다. 우리가 사는 건 희로애락, 귀중하다면 귀중하고 쓰잘데기 없다면 쓰잘데기 없는 희로애락의 끊임없는 반복이러니 않나? 생기고 없어지고 (生滅), 또 생기고 없어지고 그 지루한 반복이 소멸되면(멸이 滅已) 드러나는 소멸의 고요함(寂滅)이 더없는 환희가 되는 거(爲樂)라는 열반경 말씀이지 않나! 자 우리 늙은이들 부지런히 지워나가자. 열심히 잊어버리자. 나고 죽는 지겨운 반복이 드디어 없어져(生滅滅已 생멸멸이) 고요한 소멸의 낙을 누릴(寂滅爲樂 적멸위락) 때까지, 열반에 이를 때까지, 존음을 아끼지 말고 지워버리자.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흔적을!

<전면에서 계속> 어서 죽여라 하고 목숨을 간수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었다. 10년 징역보다 90대 태형이 더 끔찍하다는 말도 있었다.

간호사가 드레싱을 바꿀 때마다 나는 너무도 쓰라리고 아파서 울었다. 그동안 참던 비명이 결국 여기서 터진 것이다. 그래도 경과가 좋아서 두 주일 만에 나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아

파도 잘 참으셔서 병환이 잘 나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여쁜 간호사가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왜 그런지 나의 가슴은 뚝뚝 두근거렸고 그것을 소중히 받았다. 그리고 피 묻은 옷집 속에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깊이 감추었다. 나는 김사의 형을 따라서 주치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한 푼의 치료비도 안 내고 염치도 없이 병원 문을 나왔

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그렇다. 한 민족의 부강과 독립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나는 앞으로 교육자가 되자고 생각하니 가슴이 마구 뛰었다. 사익 형에게도 물었다. “그래 형은 장차 무엇이 될래? 나라를 빼앗기고 왜놈들에게 시달리는 우리 민족을 갱신할 수 있는 교육자가 안될래?” 했더니, 그가 “여보게 우선 가서 폭

쉬고 그런 문제는 차차 의논하세, 어서 우선 집으로 가자구.” 한다.

\*김상필 (1900-1996) 님의 경력  
함흥영생여학교, 함흥영생중학교 교장  
과도정부 초대 문교부 장학관  
이화여자대학교 재단이사  
문교부 문화국장, 국립도서관장(1960)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이사(1956-1996)

# 한국 전쟁 II

온 기 철 (71, 남가주)

9월 15일 인천상륙 작전은 간만의 차이 때문에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침 6시 30분에 포격과 폭격으로 월미도를 잿더미로 만든 다음 미 해병 1개 대대가 상륙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천항을 군함에서 대대적으로 포격한 다음 오후 5시 30분에 16피트 방파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 방어선은 20분 만에 뚫렸습니다. 인천에 있던 인민군 2천 명은 괴멸되었고 9월 16일 인천이 함락되자 맥아더는 워커에게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북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민군은 퇴로가 막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9월 29일 국회 의사당에서 이승만 내외와 맥아더, 워커 등 미군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환도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9월 말 10만 대군이었던 인민군은 2만 5천명의 조직적인 작전을 할 수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국군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민군 포로는 무려 1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인공은 국가를 보호할 군대가 없는 빈 집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9월 27일 워싱턴 수뇌부는 "소련과 중공이 파병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인공을 점령하여 이승만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를 통일하게 하라고 맥아더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승만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9월 29일 환도 환영식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온 그는 정일권에게 북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일권은 10월 1일에 동해안의 3사단에게 38선을 넘어 북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는 미군 편제를 바꾸고 북진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커 장군을 야전 사령관에서 8군 사령관으로 내려 앉히고 자신이 야전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커의 8군은 서쪽에서 평양으로 북진하고, 해병 1사단과 10군단은 인천을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원산에 상륙한 다음 서쪽으로 이동하여 서쪽의 8군과 합류, 평양을 수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에 동서를 잇는 도로는 원산에서 평양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병력을 두 개로 나누면 산악이 가로막아 교통과 통신이 두절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남북으로 동서를 갈라 놓는 낭림산맥은 두 병력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자연히 보급도 따로따로 해야 했고 작전 중 서로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무기, 군수물자를 배에 싣고 인천에서 원산으로 이동하는 일도 시간과 물질적인 낭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병력을 이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적인 군대가 없는 인공은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백선엽의 1사단은 별로 싸우지 않고 10월 20일에 1차로 평양에 들어왔고 10월 30일에 이승만은 평양 수복 연설을 했습니다.

맥아더는 기자회견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원산 상륙작전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 소련은 원산 앞바다에 3천여 개의 기뢰를 깔아 놓았습니다. 10월 19일 인천을 출발한 상륙 병력이 원산 앞 바다에 도착해 보니 기뢰를 제거하지 않고는 상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뢰 제거에 일주일일이 걸렸습니다. 상륙선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한 번씩 울릉도를 왕복했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렸고 이를 요요향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한편 국군은 10월 1일에 양양을 점령하고 1주일 만에 원산을 점령했습니다. 미군은 적군이 없는 원산에 그것도 계획보다 일주일일이 늦어서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원산 상륙작전을 행정 상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산에 상륙한 해병 1사단과 10군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과 3일에 각각 마오제동과 저우엔라이는 미군이 북진하면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미국 정부는 협박이라고 일축하고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중공군 총사령관 린 비아오는 60만 대군을 만주-인공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중공군 12만 명이 인공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청천강 북쪽에 18만 명, 장진호 근처에 12만 명이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는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개입하더라도 사단 또는 군단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오면 막강한 미 공군기에 노출되어 폭격으로 섬멸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중공군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의식이 강한 미군 장성들은 중공군은 농부가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전투력을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약조건에 능숙한 백전노장들이었습니다.

산악행군에는 세계 그 어느 병사들 보다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만주 안동에서 인공내 진지까지 300마일을 단 18일에 능선을 타고 행군하여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움직였습니다. 미군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공군이 능선을 타고 남하하는 동안 미군은 골짜기를 따라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계화 부대인 미군은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졌습니다. 전 병력이 점점 일렬로 늘어서야 했습니다. 골짜기에 소규모의 병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허약한 병사들은 산악 행군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기와 식량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철모와 총검까지도 버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올라오는 미군을 보고 있었고 미군은 남하하는 중공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10월 25일, 국군 1사단은 중국 말을 하는 중국인을 포로로 잡아서 미 8군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인이 약 1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만주에 사는 중국 사람인데 인민군이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가다 인민군으로 만들었다고 미군에게 말합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군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미군을 안심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10월 중순 경부터 소규모의 충돌이 일어나더니, 10월 말경에 청천강과 장진호 근처에서 제법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둘째 주부터 중공군이 흔

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공군에게 잡혀갔던 미군 포로까지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미군을 안심시키려는 중공군의 계략이었습니다. 미군이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는 사이에 중공군 야전 사령관 평저화이는 11월 4일에 서쪽 전선의 23만 명을 더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장진호 쪽으로 15만 명을 이동시켜서 미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처 보병을 따라오지 못한 화력부대와 보급을 기다렸습니다. 중공군이 인공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맥아더는 11월 5일 압록강 다리 폭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9월 말에 미 합참이 맥아더에게 중공과 인공 국경지역 8길로 이내에서 작전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리 폭파를 하려고 일본에서 항공기가 뜬지 2시간 후에 합참은 맥아더에게 황급히 폭격 중단을 명령하여 일단 포기했으나, 맥아더는 합참을 설득하여 11월 8일에 압록강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정보를 무시한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중공군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확신한 맥아더는 11월 24일 Home-by-Xmas Offense를 명령했습니다. 맥아더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병사들을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가게 해서 올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안이함은 군기 문란을 초래했습니다.

Home-by-Xmas-Offense는 서쪽의 청천강 전투와 동쪽의 장진호 전투, 둘로 갈라져서 평북 일부와 함북 일부의 남은 인공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 유엔군, 국군이 총공격을 개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좀 어처구니없지만 애초에 중공군이 없다고 가정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남은 인민군의 전력은 오합지졸 수준이어서 아주 쉽게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중공군의



병력이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4일 저녁 추수감사절 터기 디너를 먹고 다음날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간다는 희망에 사기가 충천하여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겨울까지 전투가 계속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과 국군은 방한복이 부족했습니다. 험한 산악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장병들은 철모, 총검, 무기, 총알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병사 1명당 겨우 한 개의 수류탄과 50발의 탄약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중공군의 사정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 다. 병사 3명에 하나 꼴로 소총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수류탄만 소지했습니다. 앞에 총을 가지고 있던 병사가 쓰러지면 뒤에 가던 병사가 총을 주워서 사용했습니다. 만주에 있는 대포와 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5일분의 식량과 총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적군의 보급 창고를 털어서 보급을 충당할 계획이어서 미군의 창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여러 나라에서 제조한 것들이어서 탄약 등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무기는 미국이 국민당 군대에 준 것들이었습니다.

청천강 북쪽의 아군은 정주-영산동-구장동-덕촌을 잇는 선에 배치되어 있었고, 서쪽은 미군 1군단, 중앙은 9군단, 동쪽은 국군 2군단이 맡았습니다. 11월

25일 미군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의 반격에 부딪혔습니다. 아군은 바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11월 26일 아침에 동쪽 덕촌-영동리의 국군 2군단이 봉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측면을 뚫은 중공군은 11월 26일 밤에 미군 후미에 도달하여 북쪽에서 중공군에게 밀리고 있는 미군 9군단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1월 28일 맥아더는 워커에게 퇴각하여 순천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1월 29일 9군단 2사단이 북에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군우리에서 막아내는 동안에 9군단이 퇴각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중공군이 남쪽 후미를 장악하여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순천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중공군이 매복하고 있어서 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공군의 지원을 받아 겨우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써서 미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간에 알려져 있지만, 중공군은 인해전술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은 약 15만 명이었고 북진했던 유엔군은 20만 명이었습니다. 중공군이 어떤 한시기에 동원했던 총 병력은 30만 명이었고 실제 전투에 참여한 병력은 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한 줄로 서서 북상하다가 골짜기에 소규모의 병력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나타나는 적은 항상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얀 눈이 쌓여있는 데 쓰아도 쓰아도 끊임없이 달려드는 중공군이 인해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차로 산 비탈길을 한 줄로 서서 이동하는 동안 중공군은 도보로 능선과 언덕을 타고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미군을 거꾸로 세운 V자 속으로 유인해서 낮에는 보고 있다가 밤에 공격했습니다. 중공군은 계급이 없었고 장교는 배지를 달아 구분했으며 작전 계획을 전 병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병을 잡아도 부대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군이 청천강과 장진호에서 중공군에게 패퇴하자 맥아더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11월 28일 그는 워싱턴 합참 본부에 본인은 인공과의 전쟁만 준비했지 중공군과의 전쟁은 전혀 준비하지 않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중공군 개입을 끝까지 부정해서 북진 허락을 받아 내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맥아더는 워커와 아몬드에게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워커는 평양 방어를 해보다가 측면이 위험하면 즉각 후퇴하고 아몬드는 장진호에서 철수하여 함흥과 흥남 해안에 병력을 집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공군은 퇴각하는 미군을 흥남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추운 날씨와 보급 부족 그리고 미군의 공격으로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 공군력, 해군 그리고 보급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비하여 반격했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과 추운 날씨는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급등했습니다. 역시 제 나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군 또한 잠시 점령했던 북녘땅을 뒤로하고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작가의 글의 의미는 편집자의 의견과는 무관함. --

\* 장진호 전투는 2021년 4월 20일과 7월 20일에 발행된 시계탑 "산수감산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I and II"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This Kind of War, T. R. Fehrenbach; The Classic Korean War History, 50th Anniversary edition



